



“청정교단, 교화활성화, 종단 중흥”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



방편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청정교단으로서의 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간의 그 어느 법보라도 부처님께서 교시하신 법과 계율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정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개개인의 인성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과 더불어 복자를 통한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지중은 창종 35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루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제2의 창종 정신으로 새롭게 도약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맙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16일에는 하림각에서 교계대덕 스님들과 정관계인사들

을 모시고 효강 대종사 제10대 종령 추대 축하 만찬연을 봉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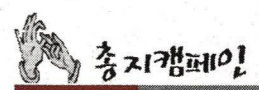
이날 만찬연에는 효강 종령예하,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조계종 군교구청장 일면스님, 불교텔레비전 회장 석성우스님 등 교계대덕 스님과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충지중(통리원장 우승)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충지사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법회는 선도원 총무부장 집공, 시정 재무부장 사회로 개식사, 종령추대 축하 헌화전달, 우승 통리원장 봉행사, 원승 중앙종의회 의장 추대사, 효강 종령예하 법어, 김은숙 서울경인지회 지회장 축사,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의 축하,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예하는 추대법회에서 “이제는 종단의 최우선 과제를 교화의 활성화에 두고 시의 적절한 교화



정승일이 벌어서 개갈이 쓴다?

어느 재벌기업 회장이 사회에 8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놓았다. 8000억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 돈인지 보통 사람들은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한 달에 200만원 받는 노동자가 8000억을 모으려면 33,300여 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현재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크로마뇽인이 출현하여 알타미라 혹은 라스코 동굴에 벽화를 남기던 시대가 지금부터 약 30,000년 전 일이다.

다시 말하면 33,000여 년 전에 태어난 어느 크로마뇽인이 그 때부터 33,334년 동안 매월 200만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적금을 부었다면 2006년 올해 적금은 만기가 되어 8000억 원이라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산도 잘 안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액을 사회에 내놓았는데도 재벌기업 회장을 칭찬하는 언론 보도는 전혀 없고 다만 8000억과 관련되어 돈에 대한 용도관리와 관리주체에 대한 보도만 있을 뿐이다. 반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월 35만원의 생활비를 아끼면서 평생동안 폐지수집 등 잡일을 해서 모은 재산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500만 원, 정자 건립에 300만 원 등을 마을에 기부하고, 또 시가 1,800여만 원의 600여 평 땅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천주교 재단에 맡겼으며, 특히 운명하기 직전 평생 저축한 700만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공공기관에 기부한 어느 시골 할머니에 대한 보도와는 참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8000억과 4천만 원,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많은 차를 보이는 액수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감동은 돈의 액수와 전혀 무관하게 다가온다.

재벌기업 회장이나 시골 할머니나 모두가 사회의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했는데 할머니의 기부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순수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지만 재벌기업의 회장이 내놓은 큰 돈은 사회를 위한 기부라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회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진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을 면하고자 하는 뇌물성이라는 의심과 범법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혹은 벌과금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 달의 종조법설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거든 탐욕을 부리지 말며 남이 자기에게 화내는 것이 싫거든 내가 남에게 화내지 말고 남의 무지를 용서하기 전에 자기의 지혜를 먼저 닦을 지니라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 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으로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49일 불공동안 다가온 당체법문을 깨쳐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 일 시 : 충기 35년 2월 19 ~ 4월 8일
- ◆ 대 상 : 충지중 교도 및 모든 불자
- ◆ 장 소 : 충지중 전 사원



사 설

청정수행의 종풍쇄신을 기대하며...

지난 2월 17일 효강 대종사께서 총기총보의 제10대 종령으로 추대되었다. 효강 대종사의 종령 재추대로 종단의 개혁과 체제정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강 대종사의 법어에서 종정방향의 밑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수행적인 면을 살펴보면, '청정수행'과 '종풍쇄신'의 강조가 눈에 띈다. 효강 대종사께서는 "종단의 부흥을 열망하는 수많은 중도들의 염원을 감안할 때, 그 책임에 추호의 느슨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면서 "원정 종조께서 재생의세의 방편이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화방편을 내어놓지 못하고 일상에 안주해왔다"고 지적하였다.

종단의 최우선 과제를 교화활성화에 두고 시의적절한 교화방편을 과감하게 채택할 것을 시사하였다. 그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청정교단으로서 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가종단으로서 종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정수행'과 '철저한 계율지킴'이다. 특히 우리 종단은 매주 자성일 불공과 매월 월초불공, 상하반기 49일 불공이 있어 그 어느 종단보다도 철저한 불공과 수행생활이 요구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는 없으나 온고이지신으로서 지켜져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철저한 불공과 계율생활'이다.

종단이 존재하는 한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불공과 수행'이다. 예전에 비해 월초불공이나 자성불공에 대한 마음 자세나 정신이 많이 퇴보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종조님께선도 "중요한 불공은 절대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불공을 중간에 깨트렸을때는 다시 시작하라'고 교설하셨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는 각오와 정신자세가 많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다. 예전과 같은 불공의 의지, 불퇴전의 용맹정진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이다.

하물며 월초불공 중임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면, 불공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얘기이다. 철저한 자기 싸움 속에 정해진 불공을 거꾸로 지켰을때 불공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종령 효강 대종사께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다. "우리 종단은 재가불교 종단이지만 출가승단에 뒤지지 않는 수행력과 청정한 계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풍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간의 그 어느 법보보다도 부처님께서 교시하신 법과 계율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정한 계율과 함께,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교화에의 불타는 정열과 불퇴전의 신심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 역설하셨다.

환자가 아프면 의사는 진료를 위해 더욱 사력을 다해야 한다. 교도가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스승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용맹심으로 교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선도(先導)해 나가야 한다. 불공과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솔선수범하는 승직자에서 교도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 신심을 내게 된다. 화도방편(化度方便)을 위해 먼저 청정수행의 종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적절하고 다양한 처방은 그 다음이다. 수행과 방편이 함께 전개되었을때 상승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동해인의 자부심과 긍지”

종립 동해중 제36회 졸업식



◇총기총보 우승 통리원장이 불교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알을 깨뜨리는 아들이 있어야 창공을 나는 새가 될 수 있듯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동해중의 졸업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총기총보 통리원장인 동해중학교는 지난 2월 21일 우승 통리원장, 의강 동해중 이사장, 동해중 동창회회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 운동장에서 제36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식은 개식사, 상장수여, 이사장 치사, 학교장 회고사, 통리원장 격려사, 재학생 송사, 졸업생 감사로 진행되었다.

의강 동해중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이제 졸업식이 끝나면 정든 교정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이별하고 교문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긴 행로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줄 것을 당부합니다.”고 말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간의 질을잡아내는 세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같이 날아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시위에 당겨진 화살처럼 손쉽게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미래의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미래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화살의 시위처럼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박수현 동해중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오늘 졸업식을 맞이하기 까지 불철주야 땀과 눈물로 땀바라지하신 부모님과 선생님

의 가르침이 있었음을 명심하시고, 동해중의 교정을 떠나더라도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한 차원 높은 고등학교에서 각자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졸업을 하더라도 동해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생활하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총기총보는 동해중학교의 불우한 학생과 학생들에게 불교적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불교반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노력할 터”

서초실버의원 김장규 원장 박사학위 취득



김장규 원장 서초실버의원

그동안 총기총보 '총기동의 보감'을 연재하고 있는 서초실버의원 김장규 원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장규 원장은 총기총보 교도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신경정신과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연수하였다.

이번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장규 원장은 “노인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봉사와 의학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생활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75호 2면 알림방 상반기49일 불공기간 회향일을 4월 8일로, 12면 사원연혁 환수원전수 벽문사 교화를 20여년으로 정정보도합니다.

알림방

- 동해중학교 입학식을 3월 3일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 수성 대종사 열반2주기 추선불사를 3월 29일 개천사에 봉행합니다.
- 총기총보 '새봄맞이 개운법회'가 3월 25일 오후 7시에 총기총보 2층에서 열립니다.

대법고

자성학교 이대로 좋은가?

엄마! 엄마~ 나 다리아파. 저기 앉고 싶어, 나 저기 앉을래...~응, 자리가 없잖아? 너 왜 그래~~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으로 대담한다.

엄마, 저 쪽 빈자리에 앉아도 돼요? 응? 그곳은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앉는 자리란다. 조금만 견디면 곧 도착한다. 참을 수 있지?

알의 얘기는 동화가 아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하루에 한번 또는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두 번째 라고 할 것이다. 반면 당신 또는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끼우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하기 곤란해진다.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 증가와 함께 경쟁력 있는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한 아동 아니면 둘을 넘지 않는 가족구성을 이루게 되었고, 전인교육이란 말은 유아교육이나 초, 중, 고등학교 시험문

제로나 나오는 얘기가 되 버렸다. 성격 좋고 밝은 아이는 자랄 것 없지만, 공부 잘하고 특기가 있는 아이는 벌써 부모, 아이 할 것 없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얼마 전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15%이상 30% 정도라는 보고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빨간 아이로 통하는 이런 아동은 조금씩 자란다고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 프로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코너가 있다. 정말로 심하더라를 넘어선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항상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더욱 근원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바람직한 애착형성은 물론 적절한 반응이 문제다. 아빠는 TV에 낚을 배를 보고 맞벌이 엄마는 청소나 밀린 빨래하느라 학교 숙제

나 과제를 챙기는 일도 벅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해 준다면 고생이 고생도 아니겠지만 문제없을 리가 없다.

아동학자인 피아제는 아동은 유전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피코츠키의 역할이 아동교육에 더욱 바람직하게 영향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유전적이지 않더라도 환경에 따라 그 미래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단체인 우리의 역할을 간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돌파구로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고 다가온 것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동시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종단은 어린이를 위해, 또 그의 부모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성학교

라고 말한 것을 뿐이고 절에 오는 아이들은 귀찮고 시끄러운 존재일 뿐, 교사 한명이라도 배치된 교구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다. 그나마 엄마 손에 끌려 한두 번 오던 절은 어색하고 부끄러워 친구 한명 데려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고, 학년이 올라가면 친구들이 가는 성당이나 교회에 가버리게 된다. 굳이 종교를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힘(?)에 끌려오던 절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보살님들께 짧은 자녀를 데리고 오시라고 하면 절에 오면 누가 놀아주는 것이다. 아동교육을 전 공했다는 위무감으로 자성학교와 어린이 포교에 관한 건의와 지원을 요청해 봐도 '뭐 그리 급하냐! 천천히 하자 천천히!'라는 회답뿐이었다. 어린이포교는 청소년 포교로 이어지고 청년회와 각자회로 이어져 새로운 교도가 되고 재산이 되어 불교를 이 땅에 굳건히 하는 밑거름이 된다. 우리 종단보다 역사가 짧은 종단도 젊은이가 북적거리고 살아 숨쉬게 하는 작은 조

직, 모임 등이 시작되었다. 법당을 둘러보면 30대를 찾이란 너무 어렵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가 좋아하는 곳엔 어른도 간다. 놀이공원, 썰매장, 어린이극장 등 보호자이기에 아이가 좋아하면 자연히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으로는 안정되고 바른 아이를 기르기 위해 불교적인 심성을 심어주고 먼저 인간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가치이자 숙임이기도 하다. 나아가 종단의 귀한 가르침을 교육하고 교화할 인재가 된다는 물론 제2, 제3의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시작해보지 않고 주저않을 것이 아니라 소신껏 애정을 가지고 해 볼 인재를 골라 재미있고 즐거운 자성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시행착오는 발전을 위한 거름이 될 것이고, 아낌없는 투자는 미래를 있게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법정원 최민희 교무〉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6년 1월 24일부터 2006년 2월 24일까지

개천사 강철우	1. 26	200,000
개천사 권영남	2. 21	10,000
개천사 박순조	1. 31	10,000
개천사 이장섭	2. 22	5,000
개천사 이희권	1. 26	10,000
관성사 심인도	2. 1	10,000
관성사 이시우	1. 25	10,000
관성사 이해원	1. 31	5,000
관성사 황성녀	1. 27	10,000
국광사 김영자	2. 10	22,000
국광사 김용선	1. 26	10,000
국광사 우 승	2. 10	500,000
국광사 무명씨	1. 26	10,000
기로원 대 관	2. 20	10,000
기로원 대자행	2. 20	10,000
기로원 법장화	2. 20	10,000
기로원 불멸심	2. 20	10,000
기로원 상지화	2. 20	10,000

기로원 수증원	2. 20	10,000
기로원 자선화	2. 20	10,000
기로원 최상관	1. 25	50,000
단음사 이구성	2. 13	5,000
단향사 공철봉	2. 1	10,000
단향사 행원심	2. 3	20,000
덕화사 김상열	1. 27	20,000
덕화사 무명씨	2. 24	10,000
덕화사 하덕순	2. 17	5,000
덕화사 하순옥	1. 24	5,000
만보사 민순분	1. 24	10,000
만보사 배정임	2. 13	10,000
만보사 승효제	2. 24	10,000
밀인사 김덕배	1. 27	10,000
밀인사 무명씨	1. 31	10,000
밀인사 신대식	2. 17	5,000
밀인사 신동의	2. 17	5,000
밀인사 신동희	2. 17	5,000

밀인사 이연수	2. 2	10,000
밀인사 이재호	1. 25	10,000
밀인사 이혜성	2. 17	5,000
밀인사 정정희	2. 1	5,000
백월사 박삼순	1. 27	10,000
백월사 유승태	2. 22	10,000
백월사 이갑진	1. 31	10,000
벽룡사 오미순	2. 13	5,000
벽룡사 이봉희	2. 8	10,000
삼밀사 김주희	1. 26	20,000
삼밀사 이재민	2. 1	20,000
선림사 대 덕	2. 20	10,000
선림사 정복지	2. 21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2. 22	100,000
수인사 김봉기	1. 26	10,000
수인사 한애숙	2. 1	20,000
실보사 송희준	2. 17	10,000
실보사 안경숙	2. 2	5,000

실보사 이순옥	2. 17	5,000
실보사 이우용	2. 22	10,000
실지사 박병성	1. 27	5,000
실지사 박병성	2. 23	5,000
실지사 보생각	1. 31	10,000
실지사 안경숙	2. 13	5,000
실지사 정경자	1. 26	5,000
실지사 정우석	1. 26	10,000
운천사 이성미	1. 26	50,000
정각사 구정희	2. 17	20,000
정각사 김문수	2. 3	20,000
정각사 김영자	2. 23	10,000
정각사 김점남	1. 31	10,000
정각사 남숙자	1. 27	20,000
정각사 문광순	2. 15	30,000
정각사 박말연	2. 23	5,000
정각사 박훈취	2. 20	10,000
정각사 신옥필	1. 24	5,000

정각사 이란이	2. 13	10,000
정각사 이상열	2. 21	10,000
정각사 최분순	2. 2	10,000
정각사 혜정심	2. 17	10,000
정각사 황영숙	1. 27	10,000
정심사 권성수	1. 25	20,000
정심사 박옥란	2. 21	20,000
정심사 오운보	1. 25	5,000
정심사 오운보	2. 22	5,000
총지사 이인성	2. 21	30,000
총지사 최순전	2. 16	10,000
흥국사 강한빛	1. 26	20,000
김정님	1. 31	18,000
김진희	2. 13	10,000
송하나	1. 31	10,000
이화수	2. 17	7,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기총보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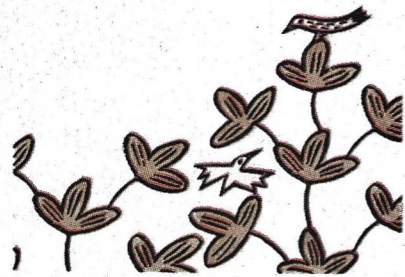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기총보 사회복지재단

불교총기총보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복(福)과 근심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생긴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데서 생긴다.

- 『숫타니파타』중에서

젓가락



젓가락은 두 개가 하나일 때,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누구든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존재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비로소 그의 존재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한 쌍의 젓가락
아찌면 지루도 들어올릴 수 있는 커다란 힘입니다.

- 김영희/시인

변늛하는 그대여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 『보살삼매론』중에서

이달의 명상

어떤 스승 앞에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스승은 그에게 진귀한 보석 한 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시장으로 가져가 값을 물어 보아라. 그러나 어떤 값에도 팔지는 말아라." 제자는 맨 먼저 과일 가게로 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석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오렌지 두 알을 주리라."

다음으로 그는 감자를 파는 상인한테 갔습니다. 그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석을 내게 주면 감자 네 근을 주겠소." 그는 이번에는 대장간으로 갔는데, 대장장이는 보석상을 한 경력이 있어 그 보석을 보자 욕심을 내며 당장 500루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몇 군데를 거쳐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상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보석상 주인은 보석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보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소." 제자는 그 보석을 들고 스승에게 돌아와 자신이 겪은 바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렌지 두알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감자 네 근에 팔아 버릴 수도 있으며, 500루피에 팔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스스로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 자신을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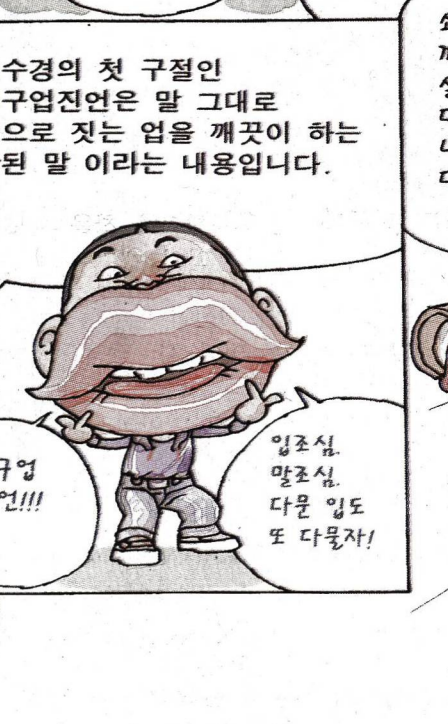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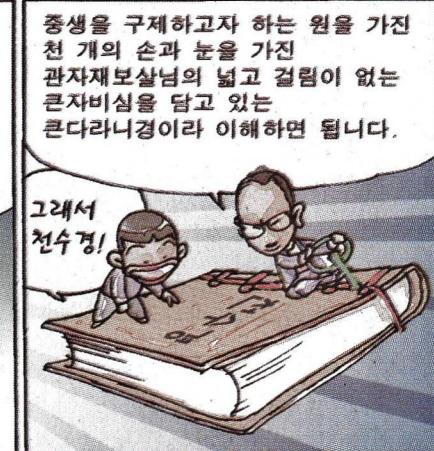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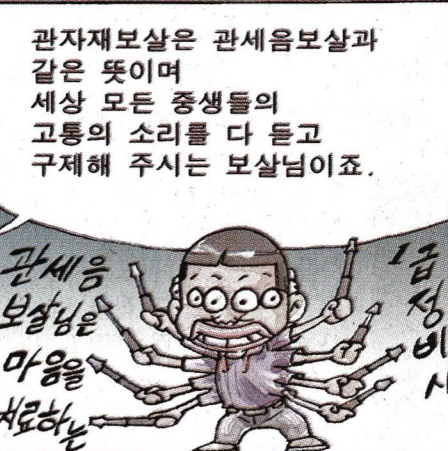
인간의 진정한 가치

비록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닌 사고의 틀이나 마음의 그릇, 지혜 공간은 그 어느 우주 행성보다도 큰 영역을 차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재어내고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내고 있으니 그 능력은 신비할 정도로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고 ~천수경편 제 1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천수경에 대해서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애독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일출리-http://home.paran.com/octagonp

염주를 수지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주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협경이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 데 열념이 되도록 도와주는 법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잠깨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영험까지 지니게 되며,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내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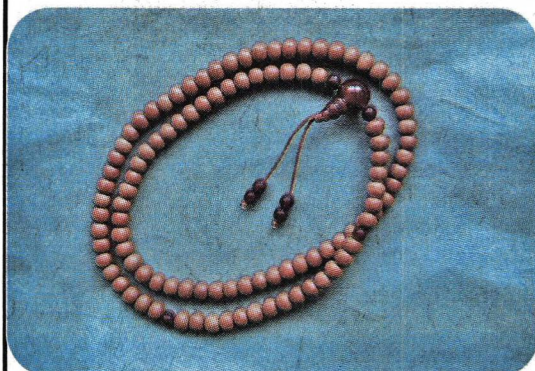
천은사 염주

알이 동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어 하죠.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축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우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대나무꽃도 더불어 상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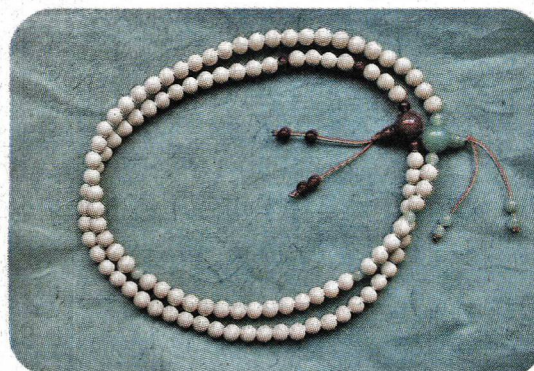
※ 구입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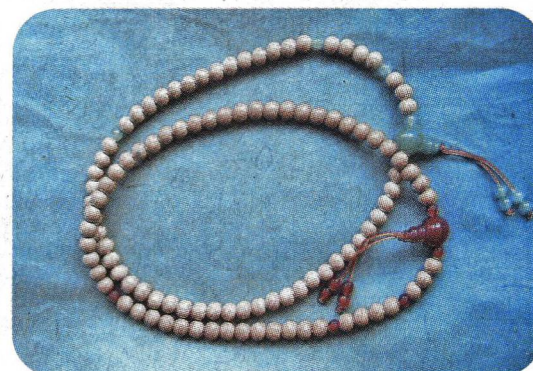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축 54과 염주 ₩20,000

마음공부가 되는 영화이야기

백지순/총지사 교도

3) 투스카니의 태양(2003)

뜻밖의 곳에서 펼쳐지는 나의 행복 찾기

“뜻밖의 일은 항상 생긴다. 그로 인해 다른 길을 가고 내가 달라진다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래서 더욱 놀란다

- 영화 '투스카니의 태양'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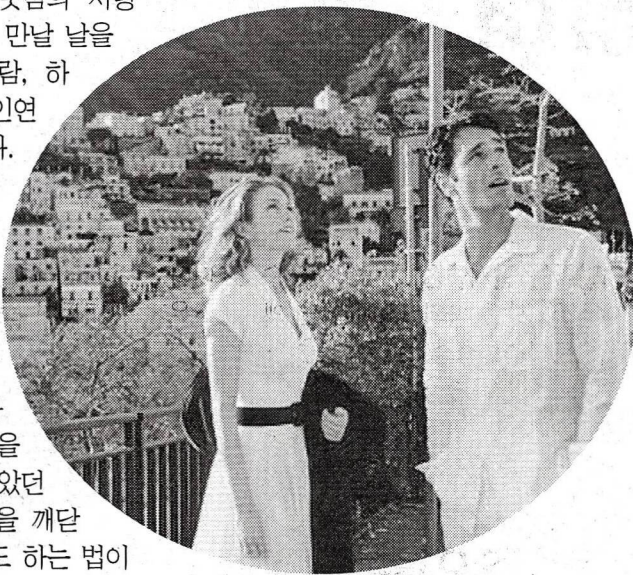


채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다. 그동안 거의 버려져있던 집,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 그 집을 막상 사놓고 그녀는 집을 먹고 만다. 이 집을 왜 샀을까? 무엇을 하려고 이 집을 샀을까? 난 이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한다. 언젠가 이 집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나에게도 다시 행복이 올까?

조금은 집 수리에 지쳐 있을 무렵, 그녀는 우연히 마르첼로라는 이탈리아 청년을 만나게 되고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는.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 둘의 인연은 거기까지이다. 성급한 사랑의 시작은 성급하게 자신을 내던지게 되고

그 상처는 결국 다시 내게 되돌아오는 법. 하지만 자신이 찾던 행복과 사랑은 이미 자신의 곁에 있음을, 다른 사람을 찾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바로 내 곁의 사람들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



추천사

바로 가방 하나 들고 떠나고 싶은 유혹, 주위의 모든 시련들을 떨쳐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싶은 유혹에 약한 이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쿵딱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느라 조금은 애를 써야 할 듯...

총지동의보감



김장규 원장

담배 속에 포함된 많은 유해 물질들 때문에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자들은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중단하였다가도 다시 피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매년 흡연자의 90%가 담

담배의 중독성

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되어서, 군대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서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TV나 광고 속의 주인공들은 너무나 맛있는 품으로 중요한 순간에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 후에 담배를 나누어 피우는 것은 개인의 습관이기에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 흡연은 중독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가들은 담배를 중독(의존)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인간에게 미치는 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독성이나 결과

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다른 만성질환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에는 약물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흡연도 대물림된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자녀들도 피울 가능성이 5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흡연을 조사해 따르면 전체 31명의 학생 가운데 22명이 담배를 피우고 흡연 학생 22명 가운데 17명은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국대병원 정영석교수 팀이 천안지역 중 고등학생 79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들의 흡연관계를 조사한 결과, 흡연하는 부모를 둔 학생의 흡연율은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가 비 흡연자인 학생들의 흡연율이 10%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것입니다.

이 결과는 부모가 흡연을 하면 자녀들은 흡연모습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자연스럽게 모방하게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흡연 시기는 30%가량이 중2때부터였고, 흡연 동기는 절반 가량이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흡연습관에는 가정환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금연은 결국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흡연자 90%가 끊기 원하나 금연 15%

흡연은 습관·중독·질병·대물림된다

배를 끊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하며,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율입니다. “담배 끊는 사람이 가장 독한 사람 중의 하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금연을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바로 담배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배가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1. 흡연은 습관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흡연은 단지 개인적, 사회적 습관이라

면에서 볼 때, 담배 역시 다른 마약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흡연과 마약을 함께 사용한 중독자들은 한결같이 마약을 끊는 것 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약 중독보다 담배에 의한 니코틴 중독이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3. 흡연은 질병이다.

또한 최근에는 흡연의 만성적인 경과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흡연을 만성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흡연을 만성 질환으로 규정

죽비소리

행복한 삶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이 없고
다가올 일에 대해 반겨하지 않으며
현재에는 얻는 그대로 따르고
바른 지혜로 생각을 매어 두며
먹는 것에도 생각을 거두었기에

얼굴빛이 언제나 곱고 밝다네
다가올 일에 마음이 치달려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근심하고 뒤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제 자신을 태우는 것
마치 우락이 초목을 때림과 같네

‘잡아함경’

새봄맞이 개운(開運) 법회

총지중 중앙교육원에서는 “새봄맞이 개운(開運) 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법회는 기존 불자들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불교 법회를 접하게 하고, 불교에 관심은 있으나 법회 참가 경험이 없는 초심자들에게는 부담 없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신한 예불 형식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법회 동참금은 받지 않을 예정이니, 교도 및 초심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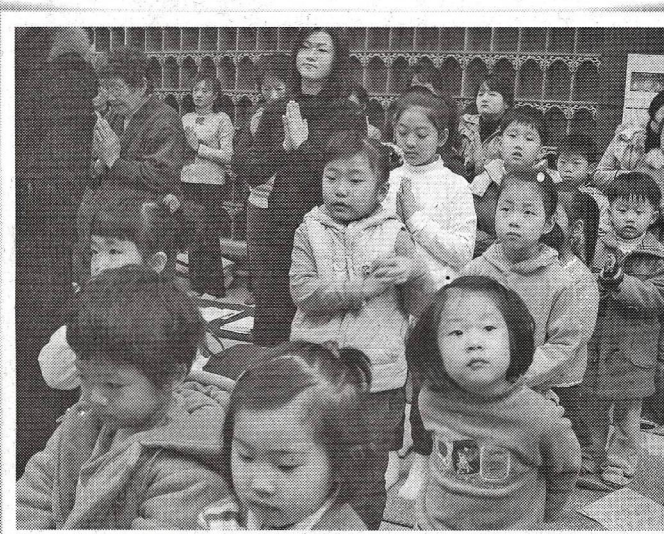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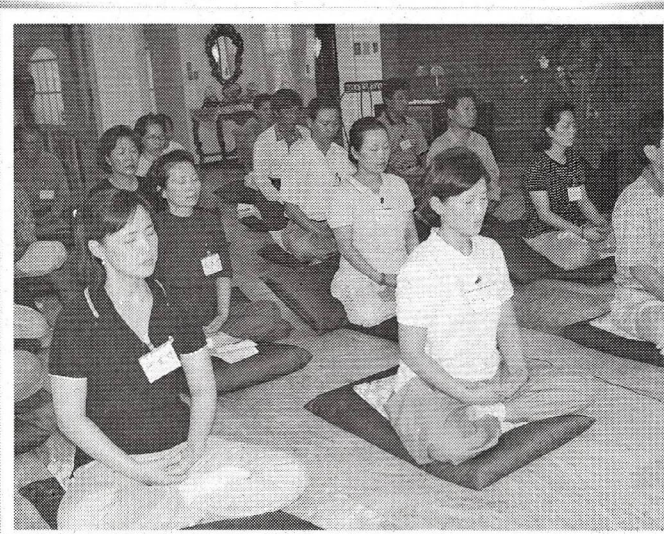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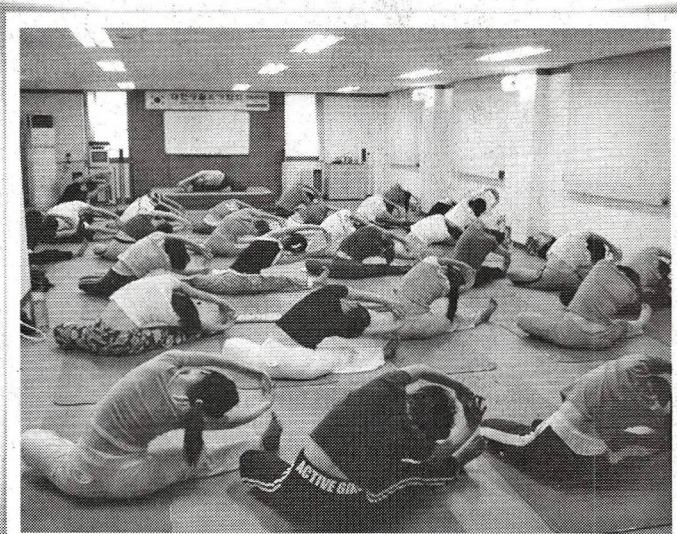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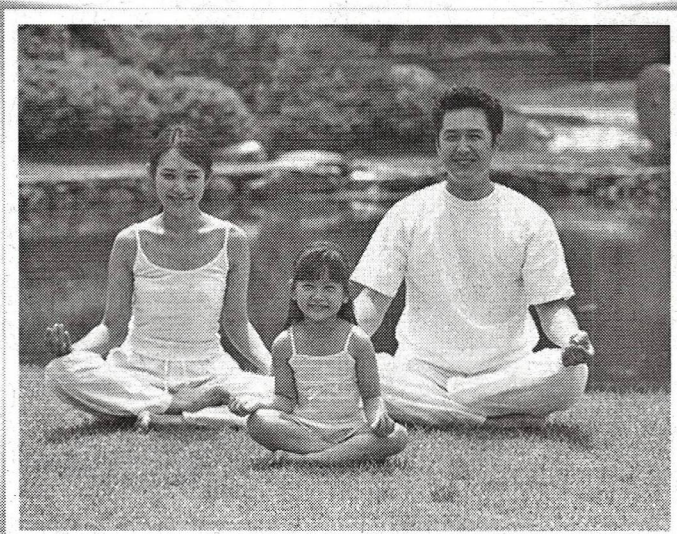
□ 날짜 : 2006년 3월 25일

□ 시간 : 오후 7:00 ~ 8:30

□ 장소 : 총지중 본원 총지사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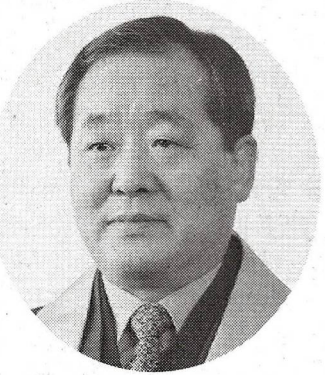
* 행사 중에는 간단한 요가동작 배우기가 있으니 간편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복(福)염주를 드립니다.



지상설법

인과는 피할 길이 없다



경원 정사

(개천사 주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인과법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생활인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인과법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보살님들은 전생, 현생, 내생, 이 삼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자 하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되고, 다음 생의 나를 알고자하면 지금 짓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생에 무엇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한 미래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행복할 것인가 지금보다는 나은 것인가? 이 문제는 부처님 제세시의 제자들도 과거나 미래세에 대한 궁금증이 마땅하지였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중생들은 사람의 몸

을 받았으면서도 목숨이 길고 짧고, 병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 재물이 많고 적으며, 총명하고 어리석게 되나йка?” 이렇게 여쭙어 보자 “그것은 중생들 각자가 지은 업 때문이다.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고 업을 인연해서 놓고 낮음이 생기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재물이 적은 것은 배풀지 않기 때문이고,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것은 자주 지혜로운 이를 찾아 진리를 배우지 않고, 죄가 되느니 안되는지를 묻지 않고, 검은 것과 흰 것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생에서 “복과 덕을 짓고 살아가느냐?” “선업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과응보가 없다면 이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평평거리고 잘 살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성공하는 모습은 인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인과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인과응보가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인악과 악인선과도 있다는

말이다. 선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이 인과법입니다. 그런데 선인악과 악인선과는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숙세의 지은 업이 현세에 나타나는 것이지 인과의 법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

를 받는다. 또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나고,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와 같이 업은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 생애, 그 다음 생애에 나타나기도 한다. “고 합니다. 이것을 삼시 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업이란 내가 마음먹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꿔 선업을 짓는데 힘써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이 그대로 나의 내생을 만들게 되는 것이니 밝은 마음으로 때가 묻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근심 걱정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함부로 살고 어두운 마음으로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내생의 나의 모습은 어두운 세계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밝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대로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지은 것은 언제 어디서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언제 받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경우 그 죄의 값을 스스로 받아야하고 어느 누가 죄의 값을 대신 받아주지 못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복의 기쁨을 대신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인과법을 이해하고 원리대로 살아가면 악업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기 때문입니다.

사물가득경을 보면 “인을 지으면 과를 면하지 못한다. 이 원인과 결과를 발농사에 비유하면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원인은 뿌리는 씨앗과 같고 결과는 수확하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익지 않으려고 해도 마침내 익

는다. 그렇다면 어떤 곡식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달라질 것이다. 좋은 인의 씨를 심었으면 좋은 과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즉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업을 짓고 사느냐, 악업을 짓느냐가 다음 생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악한 행위는 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과법을 잘 깨쳐서 내 마음

서 좋은 길을 인도해도 듣고도, 알고도 가지 않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도록 실천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느냐 웃는 얼굴인가?, 성난 얼굴인가? 그 기운은 행위에 따라서 즉, 선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전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현생 나의 행편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에 복도 짓고 덕도 쌓았으면 지금 경제적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로 오늘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음 내생을 생각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인과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이 된 인연을 심으면 반드시 복락의 과보를 받게 되고 괴로움의 씨앗을 심으면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해도 근본 원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살님들은 “인과는 피할 길이 없다.”는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인과의 원리대로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되고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해탈하시기를 서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도합니다.

이달의 설법문안

잘 살고자 하면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갑니다.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또한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상(無常)속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른 길을 분명히 선택하여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잘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 스스로와 남에게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속아 사는 사람은 범부요 못남이며, 잘 살고 잘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따며 사는 이요, 성현의 길을 걷는 이라 하여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로 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잘 사는 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까? 생각을 뽕뽕히 흠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흠어지지 않게 하는 이들은 스승이나 성현이나 설해주는 좋은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하고 있으니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알아들으니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잘 받아들이니 능히 실천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량겁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일생은

잠깐입니다. 50세를 사는 이나 80세를 사는 사람이나 잠시일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로 봐서 80세를 산 사람이 50세를 산 사람보다 30년을 더 산 것이 되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꼭 나이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50세에 죽었더라도 즐겁고 의미있게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80세에 죽었더라도 갖은 고초를 겪으며 억지 인생을 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적인 삶에 대해 한 차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겁고 의미있게 살았으면 그와 같은 삶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으며, 괴롭게 지냈으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이 두 삶이 어디에서 갈라진 것일까?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모으며 사느냐 흠으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고락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들뜬 사람은 항상 결모습에 급급합니다. ‘이웃 사람이 어떻게 입었으니 나도 그렇게 입고, 어떻게 먹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언제나 결모습에 끄달려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잘 입고 잘 먹고 고급주택에 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자녀교육에도 개성과 소질을 살려주기 보다는 남처럼 좋은 학력을 갖고 좋은 대

학에 들어가려며 온갖 열성을 쏟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생의 목표요 사는 보람입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남에게 끄달려 사는 인생이 자기만족은 필자언정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상한 시간 속의 짧은 삶을 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까? 스스로의 진실을 찾고 성실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우리는 마음을 모아 생각을 바른 쪽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사된 생각에 빠져 남 따라 멧

바른 생각으로 주인노릇하는 삶

없는 세월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기본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남 따라 사는 것과 기본 내키는 대로 사는 것! 이 둘 다 들뜬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인 정견(正見)속에서 바른 생각인 정사(正思)를 하며 사는 불자! 이것만 되어도 그 사람은 행복이 보장되는 높은 경지로 차츰 올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보지 못하고 생각이 들떠 있는 사람, 악하고 사된 생각과 거북스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차츰 타락되고 불행한 사람 속으로 빠져 듭니다.

마음은 요지경과 같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사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없는 타락의 세계로 흘러내려 갑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잡아 생각을 잘 단속하면 주인노릇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금지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인노릇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주인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는 다짐을 자꾸자꾸 해야 합니다.

똑똑한 주인노릇 하는 어머니는 고 3인 아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딸을 정성을 다해 자식의 소질과 능력을 길러 주며 그 자식은 나가야 할 길을 찾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고 3이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똑똑한 주인노릇을 하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를 남편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주인이 되어 서로를 보살피는 좋은 인연의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주인노릇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각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사된 생각에 빠지면 주인노릇을 할 수 없고, 바른 생각으로 다져 가면 능히 주인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순간

마다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오늘 왜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아,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그 욕심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겪게 되었구나. 두 번은 속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원인을 찾고 다짐하여 생활 속의 사된 생각들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나’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빠지지나 않았는지 항상 돌아보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가 아닌 자비와 복덕과 청정과 진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틀림없이 주인노릇 하는 ‘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네가지 근본 계율만 잘 지켜 생활의 중심을 이루게 되면 들뜨고 시원찮은 것들이 스스로 가라앉고 저절로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의 저울대가 분명히 있는데 어찌 바른 생각과 사된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다행한 사람들입니다. 올바르게 일러주시는 부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부처님의 제자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받아 지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졸렬한 사람이 아니다. 여유로운 도를 닦으며 사는 대장부다. 나는 주인이다. 주인공아, 월등하고 조금도 변함없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며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노릇을 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총지종보 광고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가느다란 풍경소리가 시방세계 널리 퍼져
번뇌와 고통에 쌓인 중생들을 구제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으로
총지종보는 부처님의 큰 법륜을 베풀고 있습니다.
총지종보의 발전과 부처님의 법륜홍포를 위해
광고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종보사
전화 : 02-552-0803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2-047811-13-060
예금주 : 불교총지종

총지법문

<기획연재>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1>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종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밀한 정통 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
풀이 : 위대한 지혜의 완성 - 삶의 완성, 성공적인 인생이란 모든 고난과 불행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말한다. 그 길은 오로지 위대한 지혜로써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위대한 지혜로써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

觀自在菩薩(관자재보살) 行深般若波羅密多時(행심반야바라밀다시) 照見五蘊皆空(조견오온개공) 度一切苦厄(도일체고액)

-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풀이 : 우리들이 선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완성자다.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위시해서 모든 현상계와 온갖 감각의 세계를 텅 빈 것으로 깨달아 안다. 몸도 마음도 텅 비었기에 일체 고난과 불행과 문제들은 있을 수 없다.

고난이니, 불행이니, 문제니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부터 오는가. 두말 할 것 없이 내 몸을 중심하여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등 많고 많은 감정들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반야의 삶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였다.

舍利子(사리자) 色不異空(색불이공) 空不異色(공불이색) 色即是空(색즉시공) 空即是色(공즉시색) 受想行識(수상행식) 亦復如是(역부여시)

- 사리불이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짐과 의식도 그러하니라.

풀이 : 사리자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이 몸을 위시한 모든 현상계는 텅 빈 공과 다르지 않다. 텅 빈 공 또한 이 몸, 이 현상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몸, 이 현상계는 그대로 텅 빈 공이고, 텅 빈 공 그대로 이 몸, 이 현상계인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의 작용들,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 일과 모든 인식의 근본까지도 또한 텅 빈 공이요, 텅 빈 공 그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의 작용들 그대로다.

舍利子(사리자) 是諸法空相(시제법공상) 不生不滅(불생불멸) 不垢不淨(불구부정) 不增不減(부증불감)

- 사리불이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니라

풀이 : 사리자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앞서 말한 몸도 마음도 텅 비어 일체가 공하다는 것은 새롭게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생기는 일이 없으므로 소멸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더럽다느니 깨끗하다느니,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아예 생기고 소멸하는 법이 없는데 무엇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보아온 모든 불어나고 줄어드는, 더럽고 깨끗하고, 생기고 소멸하는 일체의 현상은 실은 환상인 것이다.

우리의 진실 생명이기에 그런 일은 본래로 없는 것이다.

是故 空中無色(시고 공중무색) 無受想行識(무수상행식)

- 이런 까닭에 공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지어짐과 의식도 없으며

풀이 :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진실 생명에는 온갖 문제 투성이의 이 몸과, 그리고 일체 현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슬픈 감정들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無眼耳鼻舌身意(무안이비설신의) 無色聲香味觸法(무색성향미촉법)

-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달임과 법도 없으며

풀이 :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뿐이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나의 실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 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모두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눈, 귀, 코, 혀, 몸, 생각들의 대상이 되는 물질, 소리, 향기, 맛, 촉감, 그리고 법 또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나의 주관 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이·비·설·신·의가 없는데 그 객관적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도 밝은 이치이다.

생활속 밀교

▶갖고 싶은 물건은 열심히 노력해서 손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갖고 싶다는 욕심만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안다면, 그림조각 맞추듯 이 마음과 그 마음을 빈자리에 꼭 끼워 맞출텐데, 각각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내것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수만 수천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 그 바깥 같은 마음을 한곳에 머무르게 하고 내 마음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었다면 정말 커다란 재산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머리로 계산해서 얇은 피로 얻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대해서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같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오롯이 온전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조건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진 것들을 갖가지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나를 알아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 함께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며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짓는다고 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법이 멸하고 생한다는 것입니다. 『기신론』에 보면, '세간의 모든 경계가 다 중생의

무명망심(無明妄心)에 의하여 지탱되고 유지하니, 이런 까닭에 일체법이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아서 실체를 얻지 못하나, 다만 마음이 생기는 까닭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니, 만약 마음이 멸하면 법도 멸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살고 좋은이 늘 함께 있어서 좋아할 때는 한 없이 좋아하다가도 싫어질 때는 원수보듯 하게 됩니다. 삶은 죽음의 경계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탐하고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늘 분별심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하듯 나를 좋아하는 그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는 그사람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위사람이나 가족 친지들에게 싫어하는 마음

야 한다. 십이인연(十二因緣)도 그러하고 생사(生死)가 다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멸하면 생사가 다하여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계(三界)란 욕계·색계·무색계를 말하는 것으로 생사(生死)의 유전(流轉)을 실재없이 반복하는 미혹(迷惑)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삼계도 결국 마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무명으로 인하여 운전(輪轉)하는 열 두 가지의 그릇된 삶을 십이인연, 십이연기라 함도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바로 미혹된 마음, 어두운 마음의 무명망심(無明妄心)입니다.

생사(生死)가 없어진다는 것은 삶과 죽음 그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뜻입니다. 생사의 고통에 마음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

로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중도(中道)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이나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잠시라도 두지 말고 흘려 보내십시오. 행여 기분 나빴던 일이 있었다면, 지금쯤은 훌훌 날려 보내 버리십시오. 지나고 나면 모두가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달에 무슨 일로 기분이 나빴는지 기억하십시오. 지난 해 이맘때쯤,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기억하십시오.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요 기억조차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기분 나빠하고 반복해서 화내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어떤 나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내마음을 제어(制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선업을 짓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삼계(三界)가 마음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육도윤회(六道輪廻)는 죽어서 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 내 마음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취하며 마음이 아귀를 취하고 마음이 축생을 취하고 마음이 천을 취하니, 형상과 모양을 짓는 것은 다 마음이 하는 것이다. 능히 마음을 항복받고 도를 행하는 사람은 그 힘이 가장 센 사람이다. 내가 무수겁 동안에 마음과 싸워서 이제 성불하고 삼계를 훌로 걷는 것도 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어떤 법을 지을지는 오로지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주위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하셨습니다.

(법경/통리원 사무국장/법정원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진호국가 불공은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던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의 면모를 보여왔다.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을 강설하는 '백고좌강회'나 팔관회, 신라의 밀교승인 명랑법사가 문두루비법으로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던 일이나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한 진호국가불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불사는 국대민안을 기원하는 불사로써 신라시대 이후 보여준 불교의 호국사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불사이다. 특히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한 호국불사는 신라 이후 고려때에도 상당히 번성하였던 불사였다. 이후 오늘날 현대 한국밀교의 종흥자인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호국불교정신을 계승하여 창종 이래로 매년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 각기 49일 동안 이 진호국가불사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수호국계주전인 '음흉야호사'는 호국

불교의 대표되는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의례를 이 경에 의거하여 불사를 올리고 있다. 첫째 만다라관이나 만다라배대된 불보살과 사명왕 사천왕에 대한 내용이나, '음흉야호사'를 지송할 때 금강계 대일여래의 결인인 '지권인'을 하는 등이 그것이다.

진호국가불공

'몸'은 '귀명'의 뜻이고, '홀'은 '일체 마군을 항복'시키는 뜻을 지니고 있고, '야'는 승리, 성취를 뜻하며, '호'는 환희한 마음으로 장해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는 밝고 큰 지혜를 의미하고 있다. '바'자는 일체 만물을 두루 비추는 변조광명의 부처님을 가르칩니다. 바로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을 가르킨다. 동방 아축불은 '홀'자인데, 홀자는 동요됨이 없이 굳건한 마음을 가르킨다.

다. 이를 부동여래라고도 한다. 남방에 있는 부처님이 '보생여래'이다. 이것이 '프라'라고 하는 법자이다. '프라'는 평등하고 복이 큼을 뜻한다. 서방에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신다. 법자는 '히리'라고 한다. '히리'는 청정을 뜻한다. 이는 극락정토의 청정국토를 가리킨다. 이를 '무량수여래'라고도 한다. 북방에 계신 부처님이 불공성취 여래이다. 법자로는 '야'자를 말하는 데, 이는 실지, 성취를 뜻한다. 이를 석가모니부처님이라고도 한다. 이들 부처님은 중앙의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사방에 계시는 부처님이다. 이들 사방의 4부처님을 친근하고 있는 보살이 금강살타보살, 금강보보살, 금강법보살, 금강업보살이다. 이를 호위하고 있는 수호신인 동방에는 항삼세명왕, 남방의 군다리명왕, 서방의 대위덕명왕, 북방의 금강아차명왕이다. 또 그 바깥쪽에서 호위하고 수호신이 사천왕이다.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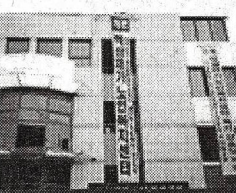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평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평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 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명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 7668610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해탈로 인도하는 부처님 음성~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대구경북교구 합창단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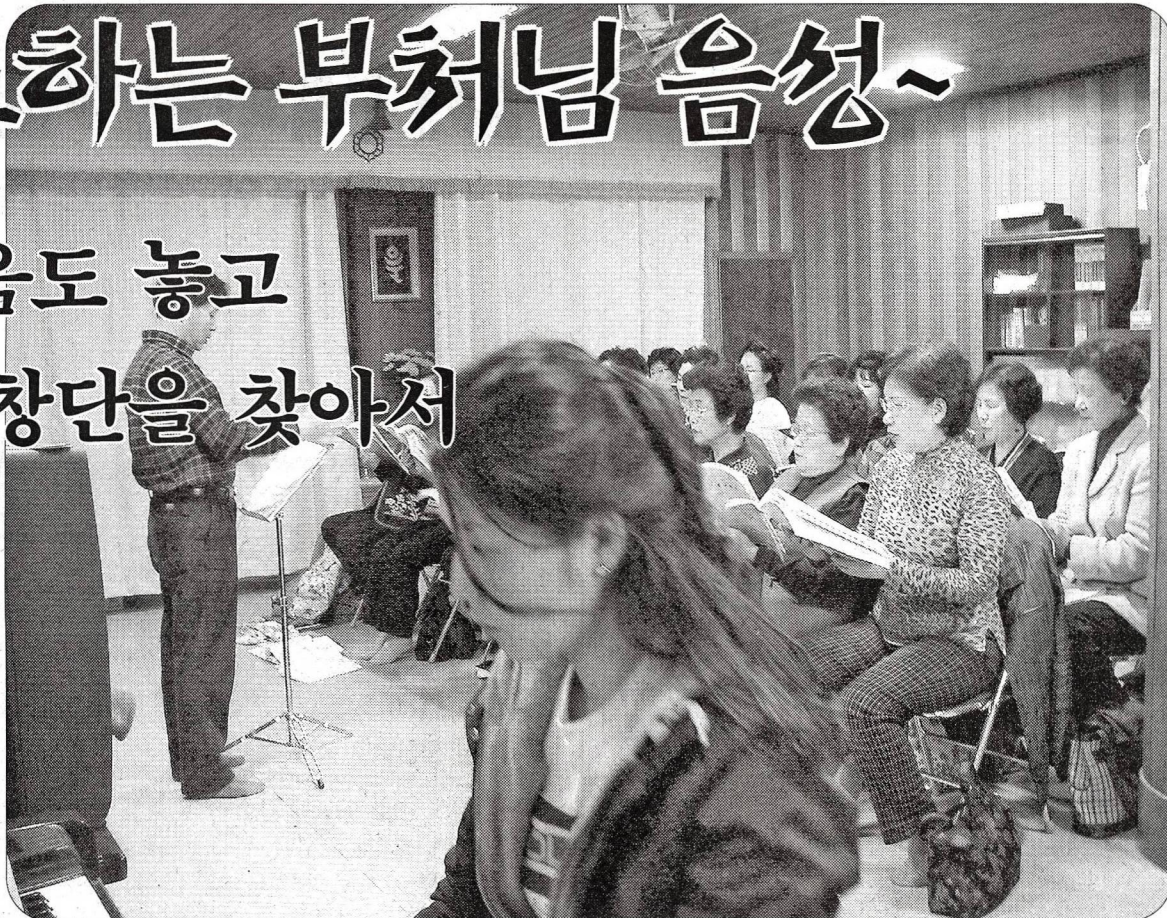
내가 태어났음으로 만났이 있고
내가 태어났음으로 헤어졌도 있습니다.
비 바람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것은
따스한 가슴으로 가슴으로 함께 있기 때문이요
햇빛이 찬란한 날 벅차게 만났다가
흐린 저녁 헤어져도 다시 또 만납니다.
아 아 아름다워라 새 털 구름 더욱 곱듯이
내가 태어났음으로 어두운 나날이
저 하늘 구름같이 흐르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할 일이 있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 괴로움도 있습니다.
겨울날 흰 눈송이 꽃잎과 같은 것은
하얀 목련꽃이 목련꽃이 피기 때문이요
저산 소복소복 가지에 쌓인 눈이
예쁜 꽃을 피우듯이 고통은 희망이요
아 아 소복쌓인 눈 진달래 꽃피게 하듯이
내가 여기 있음으로 어두운 나날이
저 하늘 구름같이 흐르게 하소서

개천사의 도량에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너를 너를 춤을 추며 바람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
다. 한적하게 흔들리는 처마 밑의 풍경소리도 합창
단의 노래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듯 딸랑딸랑
음정을 맞추고 있다.

개천사의 경내에 아름다운 부처님의 음성이 울
려 퍼진 지 어느덧 2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흐르
는 세월의 경륜처럼 노래가락은 비단위의 옥구슬
이 굴러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바람결을 멈추게 한
다.

대구경북교구 합창단은 1985년 창단되었다. 그동
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명성
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모진 비바람속에서
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서있는 나무처럼 열반하신



수성정사님과 삼정행전수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
원, 개천사에서 교화하시는 스승님들의 따뜻한 배
려, 보살님들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주 자성일마다 연습을 한다. 그래서 자성일이
그리워지고, 자성일이 즐겁고, 자성일이 기다려진
다. 오늘은 무슨 노래를 배울까? 하는 설렘과 기
다림속에 한 주를 보낸다고 한다.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팔만사천 법문이 다 이 노래
속에 있어요, 찬불가 속에 부처님의 음성이 있
어요, 찬불가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복받쳐 올라오는 환희와 슬픔과 기쁨이 있어요.”라
고 단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사랑도 놓고 미움도 놓고
원하던 정도 놓고 떠난다.
아름다웠던 날 모습
연기속으로 사라질 때
꽃이 지었네 꽃이 지었네
허무했었네 허무했었네 가슴 아팠네
눈물 흘렸네 소중했던 날
나의 고운님 열매한다 속삭이면

맑은 얼굴에 웃음
을 할뻔 지어주던
나의 고운님
이제 그 웃음 어
디가고 나만 외로이
남아있나
있고 싶어요 그대
그림자 믿기 싫어요
그대 떠날을 믿기
싫어요 아--- 아---
번뇌의 연 끊어야
사바세계 애욕을
다 벗어 던지고
참 마음 그대로 참
마음
그대도 열반에 들
리라

무상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노래를 부르는 단원
들의 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눈물자국이 눈가
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무상한 삶속에서 떠나가는
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절규라도 하듯이 목소리
에는 애절함이 가득하다.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다 못해 손수건을 찾는다.
마치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님이 떠난 듯 그리움을
참지 못한다. 애절하고 그리운 곡이 다 끝났지만
단원들은 아직도 노래가락의 여운이 남아 있는 듯
모습은 숙연해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단원들은 찬불가의 음악
과 마음을 일치시키며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쩔
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구경북교구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배해근 선
생님은 심인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으며,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 매년 교사들로 음악모임
을 구성, 국악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배해근 선생님은 대구경북교구 합창단과 1995년
인연을 맺어 10여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주 자성일 마다 개천사에 나와 단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제가 총지종 합창단을 지도할 수 있는 것도 다
부처님의 인연인 것 같아요. 부처님의 법을 음성
으로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의 소망은 총지종의 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었으
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에서 구성된 합창단들이 1년동안 같고
다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교류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각 합창단
임원들이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
보를 교환하고 같은 노래이지만 악보가 틀리기
때문에 협주곡을 만들 수가 없어 찬불가를 선별
하여 악보의 통일성을 기하고, 작년에 연합합창단이
총지종 의식곡을 음반으로 제작하였지만 이번에는
찬불가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였으면 합니
다.”라며 합창단의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
았다.



이달의 생활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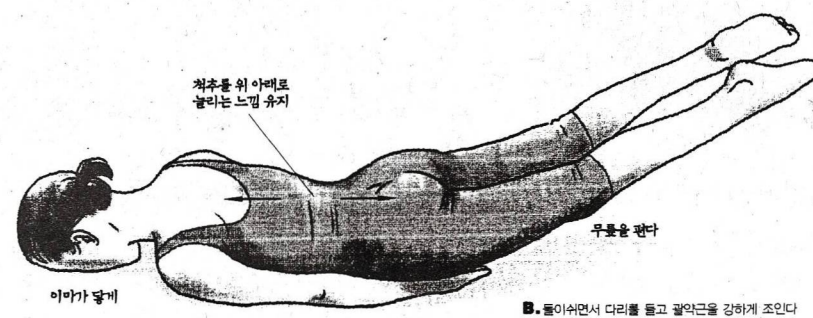
메뚜기 자세(살라바사나)

이 자세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허리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
다.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 쪽의 군살을 제거해주고 처진 엉덩이를 끌어올리
는 효과가 있다

허리를 강하게 해줌으로써 신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에 활력을 복돋
을 수 있다.

- 1) 엎드려서 양손을 포개 넓적다리 안쪽에 깊숙이 놓는다
- 2) 숨을 들이쉬며 두 다리를 높이 들어올린다.
- 3) 잠시 자세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천천히 자세를 풀고 쉰다
- 4) 2 - 3회 반복한다.



쟁기자세(할라사나)

인간은 직립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척추에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장기
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자세는 척추 전체를 늘려서 바르게 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을 해
결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하복부의 순환을 돕고 부인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장기를 거꾸로 위치시키며 하수되는 것을 예방하며 소화액 분비도
원활하게 한다.

- 1) 바르게 누워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 2) 들이쉬며 두 다리를 똑바로 들어 머리 뒤로 넘긴다
- 3) 여유가 되면 발끝을 멀리 보낼 수 있고 힘든 경우는 손으로 허리를 받쳐도 된다.
- 4) 내쉬면서 천천히 자세를 푼다
- 5) 2 - 3회 반복한다.



대구·경북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대구·경북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 ◆ 연습장소 : 개천사
- ◆ 연락처 : 최 지 형
053-762-6386

※ 교도가정의 경조사에 초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음성공양해 드립니다.



교계소식

“부처님의 법음을 세계로”

불교텔레비전 미국 전역 실시간 방송



◇ 불교텔레비전 미국 전지역 실시간 방송을 축하하는 기념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텔레비전 BTN(회장 성우 스님, 이하 불교TV)이 오는 2월 23일부터 미국 전역에 24시간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불교TV는 이를 기념하고자 2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 기념관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TV 미국전역 실시간 방송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11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TV는 세계화·문화·무선 시대에 맞

춰 한국불교를 세계 중심국가인 미국 전역에 영상포교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아이스카이콤(iskyoom)’ 위성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게 된다. 나아가 점차 현지화에 맞는 맞춤 포교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 포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불교TV의 실시간 미주 방송은 한국불교를 미국에 널리 알리는 것으로, 영상 포교의 구심점 역

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우 스님은 “지금은 멀티미디어 세계로 부처님 법음도 시대에 맞춰 포교해야 한다”며 “불교TV의 미국 방송은 동서문화의 교류에도 큰 획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지에도 널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은 표정으로 포부를 밝혔다.

불교TV의 미국 방송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미국 방송을 통해 부처님 법음과 한국 불교를 동시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유통불사는 불자로서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해 불교TV의 미국 방송의 성공을 기원했다.

불교TV는 앞으로 한국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이날 법회에는 우송 총지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탤런트 강부자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봉축표어는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봉축위, “맑고 깨끗한 세상 발원”



◇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를 봉행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표어로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선정했다. 1월부터 실시한 봉축표어 공모를 통해 670점(327명 응모)을 접수한 봉축위는 심

사를 거쳐 올해 부처님 오신날 표어를 위와 같이 선정했다.

봉축위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같은 날로, 맑고 깨끗한 어린이 마음

린이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세상을 발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올해 부처님 오신날 표어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 오신날 공식 표어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사용된다.

올해 당선자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응모한 임병학(54)씨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사찰 ‘장안사’의 신도로 법회 중 스님의 참여권유에 조계종 홈페이지를 보고 응모를 했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장안사에 상금을 보시하기 했는데, 뜻을 이룰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불교 해외포교 박차

조계종, 실천승가회 등 아시아에 시설마련



◇ 캄보디아에서 보육원인 “아름다운 세상” 준공법회의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불교계가 해외포교를 위한 발걸음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이 스리랑카에 복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실천승가회가 캄보디아에 보육원을 준공했다. 천태종과 진각종도 해외포교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가며 해외포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불교의 해외포교는 지진과 해일 등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기반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

장 효림·성관)가 설립한 국제 NGO인 ‘실천불교’는 2월 18일 캄보디아 시엠림 현지에서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BWC 건립은 실천불교가 캄보디아 정부와 협정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이 사업에 50년간 1만2천여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BWC는 앞으로 100여명의 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원과 6년제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천불교의 해외 구호사업은 이미 2002년 부터 시작돼 기술교

육을 위한 컴퓨터 100대와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는 등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직접적인 지원에서 교육, 직업 훈련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와 포교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계종은 3월 5일 스리랑카 캄파와 파살리지역에서 고아원과 유치원, 등 복합센터가 들어설 조계종복타운 건립 착공법회를 갖는다. 스리랑카에 건립될 조계종복타운은 입적한 법장스님 총무원장 재임시절 ‘자비의 탁발’을 통해 모은 기금 20억원 중 1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그 기금중 나머지는 파키스탄 지진 구호에 1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미국 뉴올리언스 태풍 피해에도 성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국가 아닌지 만, 아시아 지역과 한국불교계의 문화교류 사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천태종은 올해 중 파키스탄 편지지역의 간다라 불교문화 예술 복원 사업을 시작한다. 천태종은 이를 위해 조만간 간다라 문화예술협회를 구성하고 편지 지역의 고대사원 발굴 및 복원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편지지역은 대승불교의 발원지이면서 삼국시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해 준 인도인 마라난타 스님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연등국제불교회관도 한국·방글라데시친선협회와 함께 이슬람 국가로서 최근 불교 등 소수종교가 탄압받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한국 절을 세우는 불사를 벌이고 있다. 방글라데시 랑가마티 치타공 지역 8,000여평 부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올 11월쯤 강원이 먼저 들어서고, 이후 대웅전, 선센터는 물론 학교와 도서관 등이 함께 들어서 이슬람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전법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활발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불교계의 이같은 활동이 자칫 ‘퍼주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의 한 스님은 “현지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지 브로커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찰과 시설을 아시아 지역 국가에 짓는 것 만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금과 인력,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불자가수들, 이웃돕기도 일등!

불자가수회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일일차집’ 개최

불자가수회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차집 행사를 열었다.

불자 가수들이 2월 21일 불교진흥원 빌딩 지하 다보 커피숍에 한데 모였다.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홍국)가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자선 모금을 위해 일일차집 행사를 개최한 것. 일일차집에는 흥겨운 음악과 많은 인파로 발땀을 흘렸다. 마련한 테이블마다 빼곡히 손님이 들어차고 불자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계속됐다. 참석자들은 가수들의 공연에 모두 흥겨워했다. 불자 가수들이 일일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강해자 보살은 “가수들도 직접 만나보고 노래도 들으니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다”면서 “또 좋은 의미로 열리는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도시의 아이들의 전 멤버였던 박익선 씨, 박경자 씨 등의 축하무대가 계속될수록 그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불자가수회 지도 법사 무일 스님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무일 스님은 “이렇게 좋은 행사가 마련돼 참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에 앞장 서 나가는 불자가수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불자 가수들을 비롯해 탤런트 전원주, 여운계 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매년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해 행사를 열고 있는 불자가수회는 이번 일일차집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구청 사회복지과에 기부할 예정이다.

불교계, 토요휴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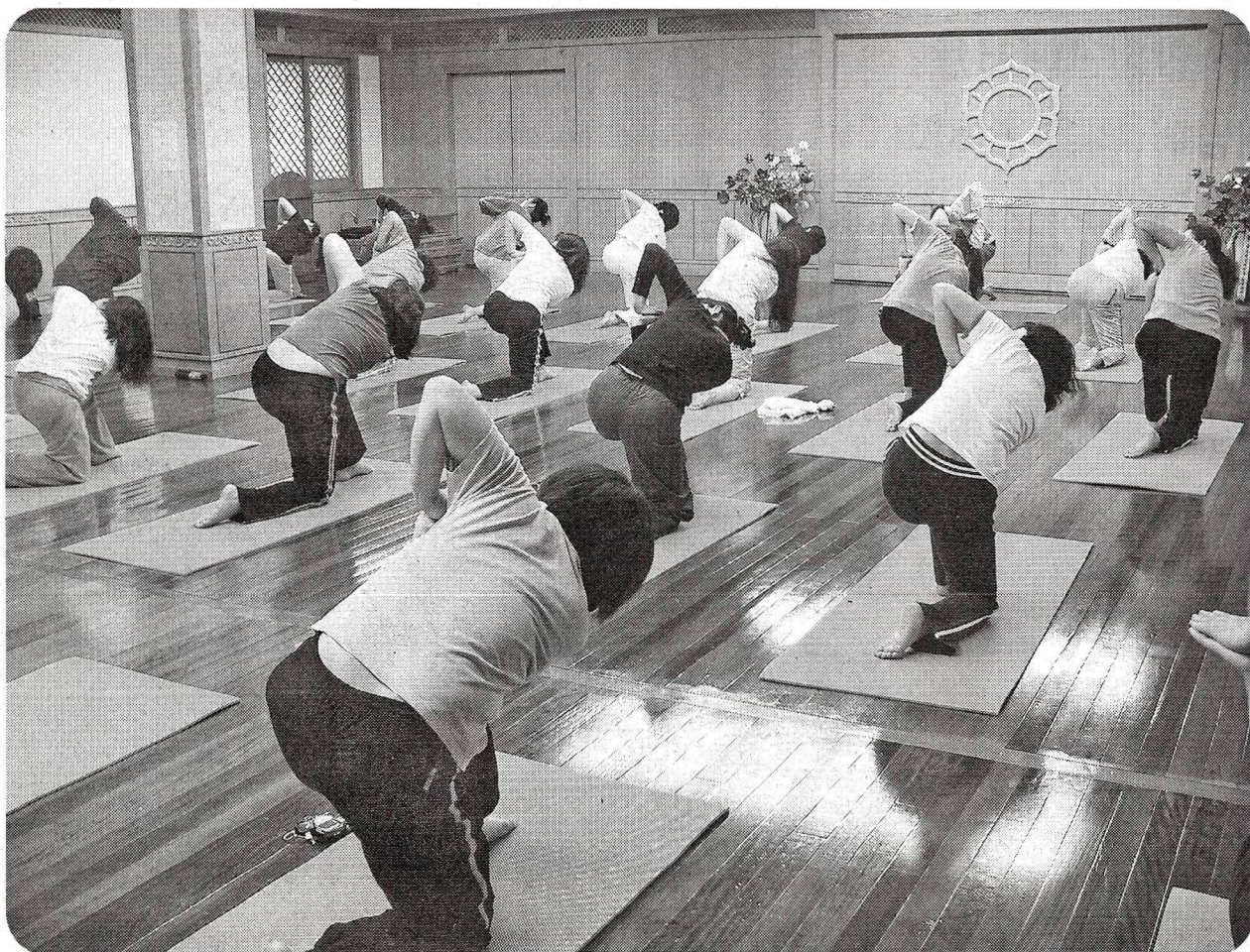
프로그램개발 시급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 주최로 2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5일수업제 관련 세미나에 종교단체의 관심이 집중됐다.

설동근 교육감은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2월 23일 실시되는 만큼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종교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로 도와 부산 교육이 전국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여러 사찰을 중심으로 토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대 상 : 일반시민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6시, 화·목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40,000원, 월 \30,000원
정각사 - 월 \20,000원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교계소식

“생명나눔 범국민 운동으로 이끌 것”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취임



◇생명나눔실천본부 일면스님 이사장이 취임사를 봉독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월 23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임 이사장 일면 스님의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으로부터 법인기를 전달받고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일면 스님은 취임사에서 “죽음 직접 법회를 통해 새 삶을 살게 된 생명나눔의 수혜자이기에 이 자리가 참

으로 감회 깊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초대 이사장 법장 스님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생명나눔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불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내빈과 후원회원 그리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발전해 왔다”며 “생명나눔은 다른 생명을 구해낸다는 깊은 뜻으로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의 정신이며 보살행의 실천으로 불제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 신임 이사장 취임법회에는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교육원장 청화 스님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일면 스님의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환경훼손은 수려한 산과 사찰을 파괴하게 만드는 일로서 불교인들이 앞장서는 것은 마땅하다”며 “여러분이 환경 파수꾼이 돼 막무가내식 환경파괴를 막고 지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환경연대 5차 총회는 △200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0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규약 개정 △임원 인선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환경연대 5차 총회 개최 보선, 세영, 혜자 스님 공동대표 선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스님)는 5차 총회에서 2006년 주요사업발표와 보선, 세영, 혜자 스님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규약 개정과 중앙위원회를 폐지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월 23일 조계사 교육관 2층에서 5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비롯한 현고·진원·원담·혜자·진월·해경·지현 스님 등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상임대표인 수경 스님을 대신해 세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 천성산, 북한산 문제 등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며 “불심양면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축사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교환경을 위해 힘쓰는 수경, 세영, 진원 스님을 비롯한 관계 스님과 대중들에게 감사하다”며 “환경이 이 시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치하했다.

스님은 또, “현 시대의 화두로 환경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주위사건들이 별로 좋지 않아 여러 견해들이 있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은 의미있는 활동으로 주위의 비판에 위축되지 말고 환경 지킴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님 법을 구연동화 애니메이션으로 대불어 흠피 불교 동화와 찬불가 업데이트

사단법인 동원 대한불교어린이회도 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는 홈페이지(www.dongryun.net)에서 2006년 3월부터 ‘구연동화로 듣는 부처님 말씀’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불어 흠피의 어린이 강원에는 7편의 구연동화와 3편의 찬불가를 제작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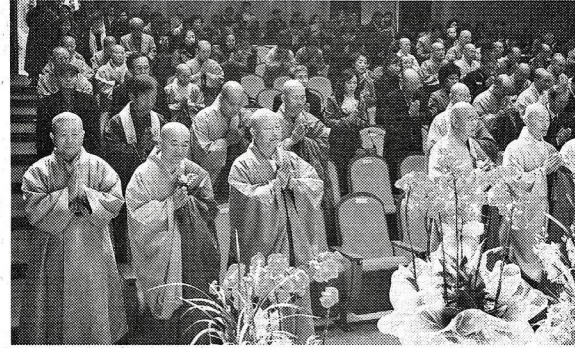
이들 구연동화들은 2005년 열린 제1회 구연동화대회 수상작들과 함께 만든 것들로 ‘호미를 먹는 쥐’ ‘코끼리 왕과 사나이’ ‘동물 세 친구’ ‘아차와 재채기’ ‘황금거위의 깃털’ ‘대답하는 바위’ 등 반짝이는 재미와 지혜, 게다가 감동까지 곁들여져 있다.

이 모든 동화들은 본생경, 백유경 등 경전속 이야기들로 2500년 전, 쉬운 말

씀으로 중생들의 무명을 거두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 귀를 솔깃하게 한다. 또한 좋은 벗 풍경소리와 함께 제작한 ‘썰매드림랜드’, ‘돼지인 금’ 등의 찬불가도 제작해 구연동화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대불어는 3월부터는 매일 2편의 구연동화와 찬불가를 제작해 업데이트시키는 한편, CD로 제작해 월간지〈연꽃〉과 함께, 세계 10여개국, 그리고 전국 1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스를 공개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각 사찰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 등 원하는 곳에도 누구든 퍼갈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조계종 국제 포교사회와 영어로 된 버전 제작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불교사회복지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23일 출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출범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 이사 지관 스님)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출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장 법등, 중앙종회 사회문화위원장 학담,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을 비롯해 불교사회복지 관계자 300여명이 동참해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출범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불교사회복지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향후 불교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모범 사례 발굴, 학술포럼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정기간행물 및 단행물 발간을 통해 교계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교사회복지의 이론과 목표를 제언함은 물론 비전 제시를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지현 스님은 “불교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나눔을 근본으로 불교정토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지만 국가에서 위탁한 시설 사업에 치중한 결과 불교적 종교성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한계들을 직면하게 됐다”며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불교사회복지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체화하는 시발점으로 사부대중의 힘찬 격려와 조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출범식에 앞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을 각각 위촉하고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자문위원에는 동국대 교수 대원 스님 비롯해 9명이 선임됐으며, 연구위원에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동국대 김용표 교수 등이 연구위원으로 동참한다.

“상생·화해의 길은 없는 것인가” 새만금 범종교인 기도회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새만금의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염원하는 범종교인 기도회가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새만금을 파괴하고 생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씌인 대형 현수막아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았다. 하우스님의 법고연주가 끝나고 원불교의 경중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의 순으로 진행됐

다. 기독교는 바지락, 망둥어 등 새만금 갯벌의 생명들을 그린 그림을 들고 나와 기도했으며, 불교에서는 원택스님 등 스님들이 엄숙히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이어 원불교에서는 교무들이 나와 기도했다. 천주교는 전례무용단이 ‘사랑’이라는 노래에 맞춰 무용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새만금 서원문을 4대 종교가 공동으로 낭독하고 조계사에서 인사동을 거쳐 광화문까지 거리행진했다.

정교 다이제스트

▶남은 마늘의 보관방법

마늘은 한번에 사용하는 양이 아주 적다. 보통 사용하고 남은 마늘을 그대로 두면 썩어 트거나 말라 버리는 일이 많다. 쓰고 남은 마늘을 잘 보존하려면 먼저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한쪽씩 나누어 입구가 넓은 병에 넣는다. 그리고 그 위를 덮을 만큼 셀러드유를 넣고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굴 오래 보관하기

굴이 잠길 정도의 물에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 손으로 잘 저어 섞어준다. 그 다음 굴을 넣고 1~2분간 흔들어주면, 굴 표면의 농약도 제거되고 보름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수박고르는 방법

조기수확하여 후숙시킨 것은 신선한 맛이 떨어지므로 적기에 수확한 것이 좋고 신선하다.

1. 일반적으로 큰 것이 상품이고 껍질이 얇고 탄력이 있으며 딱지 부위의 줄기가 싱싱한 것이 좋다.
2. 하우스 조기출하 수박은 짙은 녹색보다 연한 연두색이 좋고 수박 특유의 검은 줄무늬가 뚜렷하며 색깔이 짙은 것이 상품이다.
3. 잘익어 속살이 싱싱하고 당도가 높으며 감미가 풍부하고 씨가 없거나 적은 것이 좋은 상품이며 과육의 조직은 치밀하며 속이 껍 들어찬 것이 좋다.

▶감자채 볶음 잘하려면

감자의 맛과 색을 둘 수 있도록 감자채 볶음을 하려면, 볶을 때 감자를 채 썰어 물에 헹군 후 소금물에 담갔다 건진다. 건진 감자채에 마늘과 물엿을 넣고 볶으면 감자의 싱싱한 색을 보존할 수 있다.

▶가지를 볶을 때

가지를 볶아 먹을 때는 간혹 기름맛이 강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지가 기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계속 기름을 넣다 보면 지나치게 양이 많아져 오히려 가지의 단백한 맛 대신 강한 기름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름을 적절하게 흡수한 가지 본래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볶기 전 소금물에 가지를 담갔다 조리하면, 기름을 지나치게 흡수하는 것을 막을 뿐더러 가지의 짧은 맛도 없앨 수 있다.

서 초 실 버 의 원

양재동에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여 가락신경정신과의원에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인 서초실버의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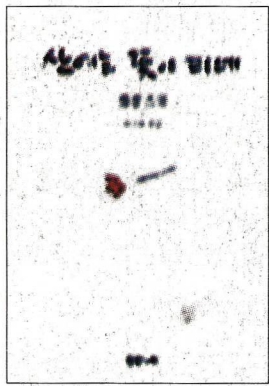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도서

산에는 꽃이 피네

류시화 편/법정 저 / 동족나라 / 정가 8,000원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공백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훌륭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p.80

평생 청빈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법정 스님의 여러가지 말씀을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 법문과 강연, 말씀을 류시화 시인이 가려 뽑아,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워져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을까', '삶의 진정한 가치와 매 순간 자기를 점검하는 구도자적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답한다

배려

한상복 저 / 위즈덤하우스 / 정가 10,000원



경쟁과 이기주의에 둘러싸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가치를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나에게 배운 작은 '배려'가 모여 결국 자신의 행복과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는 것. 책의 저자는 '배려'와 '나눔'이 바로 타인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불러오는 원동력이라고 재미있는 우화 형식을 빌려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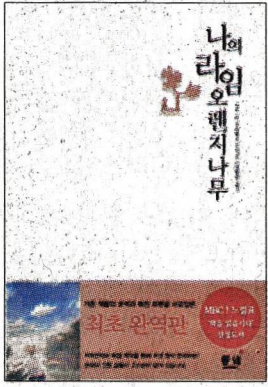
주인공 '위'는 수석 입사하여 고속승진을 계속해온 촉망받은 인물, 하지만 정리대상으로 여겨지는 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진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반성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얻게 되는데...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이다. 일반 회사에서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설 형식으로 다루어 놓아 빠른 시

간 내에 흥미진진하게 읽어 내려 갈 수 있다. '배려'는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가치를 보여 줌과 동시에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J.M. 바스콘셀로스 저/박동원 역 / 동녘 / 정가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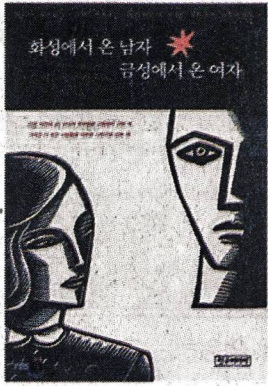


브라질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바스콘셀로스의 대표작품이자, 세계 21개국에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성장소설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다섯 살 소년 '제제'를 통해 사랑의 문제, 인간 비극의 원초적인 조건, 인간과 사물 또는 자연의 교감, 어른과 아이의 우정 등을 잔잔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후기에서 역자는, 데모와 산위로 점철되던 청년 시절 서툰지만 좋은 작품을 번역한다는 기쁨으로 대학노트 두권에 걸쳐 놓았던 이 책(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에 대한 추억과, 제제의 나라 브라질로 건너가 라임오렌지와 파마린두(타마린드)와 고이아바(구아바) 등의 과일을 먹어 보고 제제가 좋아하는 '늘어진 마리아' 젤리도 맛본 후 다시 기존의 오역과 빠진 부분을 바로잡아 최초로 완역판을 내놓게 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에는 삽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양장으로 예쁘게 만들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저/김경숙 옮김 / 천구미디어 / 정가 10,000원



화성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성인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님을 마침내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게다가 금성인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상대가 지지하게 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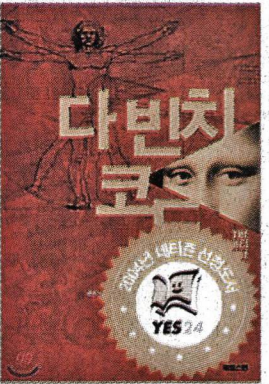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문제에 매달려 고민하기를 그치고 매우 긍정적인 자세가 된다. 이것을 알면 화성인들은 자기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본문중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긴장과 원망과 불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혼의 위기에 처한 2만 5천여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의 결과로 만들

어진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이성인 상대에게 말을 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 뒤편 뒀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빈치코드 1. 2

댄 브라운 저/양선아 역 / 대교출판사 / 정가 7,800원



2003년 3월 첫 출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약 7백만 부가 판매된 화제의 책, 『다 빈치 코드』가 드디어 국내 번역 출간된다. '메가 베스트셀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이 책의 전세계적인 인기는 가히 '열병'에 가깝다.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추적한 각종 TV 프로그램, 아마존 독자서평 3천 개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전세계 독자들은 다 빈치 그림에 숨겨진 고대역사의 비밀을 해독하는 데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USA Today'지는 『다 빈치 코드』가 유일하게 '해리 포터' 시리즈의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보도했고, ABC 방송사는 뉴스 스페셜에서 <예수, 마리아 그리고 다 빈치>라는 제목으로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크게 다루었다.

한때 평범한 교사이기도 했던 무명작가를 일약 '소설계의 비명' 자리에 올려놓은 이 책의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언론은 『다 빈치 코드』에 등장하는 단어가 실존하는 교파이고, 소설에서 행단의 입을 빌려 들려주는 미스터리 인물들도 우리가 흔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실존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고대 역사와 비밀단체, 암호 등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도 한 요인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충분한 연구와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 탄탄한 구성력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더해져 이 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며,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에서 모두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소설은 루브르 박물관 소니에르의 살해 사건으로 시작한다. 주인공 로버트 랭던과 소피 누베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고, 2천 년 동안 단단하게 짜맞춰진 비밀을 파헤치는 최전선에 서게 된다. 그들은 이 숨막히는 여정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술작품에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고, 독자들이 함께 그 암호를 풀어 나간다.

독자 스스로 질문과 대답을 되풀이하며 숨겨진 비밀에 보다 깊숙이 다가가다 보면, 흥분과 놀라움으로 마지막 장을 덮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흥미로운 내용 전개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올해 최고의 화제작.

이달의 사찰음식 ③

▶ 참나물생결이



재료
참나물 200g, 청장 1½큰술, 고춧가루 1큰술, 식초 1작은술, 통깨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참나물은 연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5~6cm로 다듬어서 깨끗이 씻고 물기를 뺀다.

② 넉넉한 그릇에 청장, 고춧가루, 식초, 통깨, 참기름을 넣어 섞은 후 ①을 넣고 살살 털어 가면서 버무린다.

※ 양념을 만든 후 나물을 넣고 무쳐야 간이 골고루 배다

▶ 당귀생결이



재료
당귀 200g, 고춧가루 2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큰술, 깨소금 1큰술, 소금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당귀잎은 잎이 넓으므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 둔다.

② 넓은 그릇에 고춧가루, 설탕, 식초, 소금, 깨소금을 넣고 버무려 둔다.

③ ②의 양념에 미리 준비해 둔 당귀잎을 넣고 으스러지지 않도록 살살 무친다. 미리 양념에 버무려 두지 말아야 한다.

※ 당귀는 한약재이며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있다.

▶ 방어장떡



재료
방아 200g, 밀가루 1컵, 고추장 2작은

술, 된장 2작은술, 물 1컵, 식용유 2큰술

만드는 법

① 방아는 잎과 연한 줄기를 깨끗이 손

질하여 씻은 다음 물기를 뺀다.

② 넓은 그릇에 고추장과 된장을 넣고 으깨 다음 밀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한다.

③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구어지면 준비해 둔 방아를 팬에 얇게 펴놓고 ②의 반죽을 부어서 얇게 지져낸다.

※ 고추장과 된장이 간이 되어 있으므로 타지 않게 지켜내야 한다.

▶ 죽순장아찌



재료
죽순 10개, 진간장 5컵, 생강3쪽

만드는 법

① 죽순은 겹질째 찢뜨물에 푹 삶아 겹질을 벗긴 후 차게 식혀 물기를 뺀 다음 향이러나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고 돌로 꼭 눌러 둔다.

② 진간장은 미리 한번 끓여 차게 식힌 후 죽순이 잠길 정도로 붓는다. 이때 생강도 편으로 썰어서 함께 넣는다.

③ 4-5일쯤 지나면 간장을 따라내고 다시 끓여 식힌 후에 붓는다. 이런 식으로 2-3회 반복하고 1개월쯤 식힌 후 먹는다.

※ 식은 죽순은 식성에 따라 깨소금이나 다른 양념으로 무쳐서 먹기도 한다.

▶ 민들레나물



재료
민들레 200g, 들깨가루 1작은술, 청장 1작은술, 들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민들레(꽃이 피지 않은 것 선택)는 씻어서 물기를 뺀다.

②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친 후 냉수에 헹구어 꼭 짤다.

③ 넓은 그릇에 삶아 놓은 민들레를 넣고 청장과 들깨가루를 넣고 간이 배도록 살살 주무른 후 깨소금, 들깨가루를 넣어 무친다.

각종 귀금속 전문 도소매 천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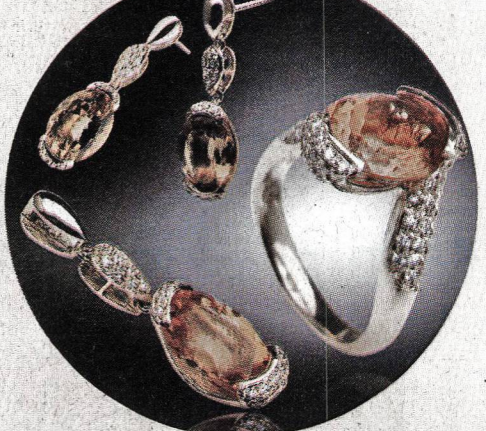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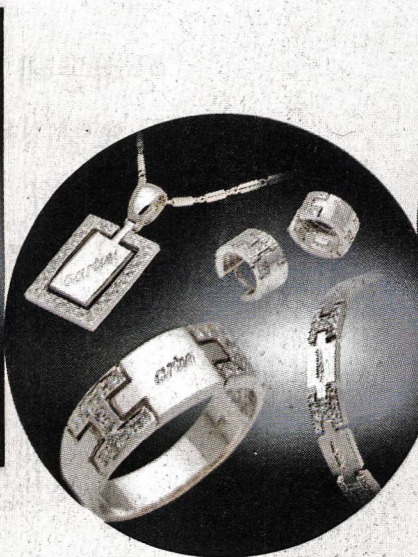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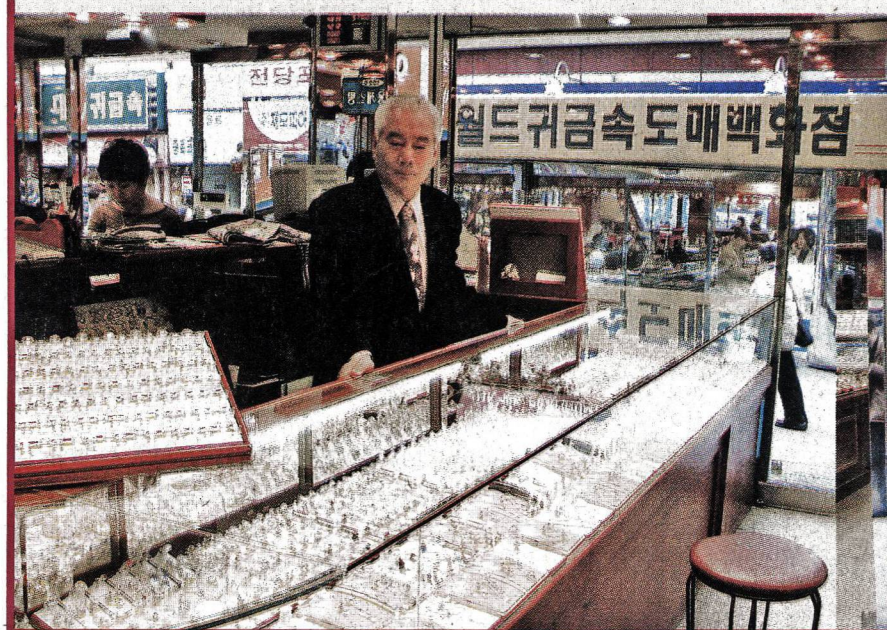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금사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총지공 고도 및 불자들에게 한 해서 최상의 품질과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불교포교와 총지공 중흥불사에

희사하겠습니다.



천금사

주 소: 서울시종로구 봉익동 159-3

대표이사: 권경봉

전 화: 02-743-7204

H. P: 011-771-7204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종로3가역 11번 출구
종묘공원쪽 첫번째 골목
삼보귀금속센터 내

“진언염송을 통해 해탈기원”

상반기 49일 불공, 진호국가불사 입재



발전을 염원하여 국가안녕과 발전을 통해 개인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에서 우송 통리원장은 “상반기 49일 동안 모든 스승과 교도들이 용맹정진하여 각자가 소원하는 소망이 성취되시길 서원하며, 우선 무명속에 가려있는 자성불을 밝히기 위해 탐, 진, 치 삼독심을 버리고 밀교의 오묘하고 신비스런 진언염송으로 용맹정진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며 모든 불자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상반기 49일불공기간에 자녀잘되기와 경제적 발전을 서원하는 불공을 올림으로써 진언수행자로서 자성불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한다.

◇상반기 49일 불공동안 진언 행자들이 진호국가와 해탈을 기원하고 있다.

총지종은 지난 2월 19일 전국사원에서 모든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상반기 49일불공과 진호국가불사 입재에 들어갔다. 이번 상반기 49일불공은 4월 8일까지 봉행된다.

상반기 49일불공기간에 진호국가불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창종 초기부터

부처님의 은혜와 부모, 국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대보은사상을 강조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진호국가불사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9일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종단 전체가 참여하여 나라의 안위와 조국통일, 그리고 재난물생과 산업

발전을 염원하여 국가안녕과 발전을 통해 개인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합창단은 부처님의 법을 음성으로 전하는 포교사이자, 이들은 종단과 사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음성공양을 할 뿐만 아니라 사원에서 발생한 모든 경조사에서 동참하여 기쁜 일은 두 배로 나누고 슬픈 일은 반으로 줄

나도 한마디

구 합창단 3팀만이 존재하고 있다. 합창단은 대부분 젊은 보살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원을 이끌고 나가는데

라는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더불어 신심을 고양하고, 협동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종단의 교화활성화는 젊은 교도들이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교방법이 존재하겠지만 그

합창단 창단과 육성에 종단적 지원을 다해야

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선행을 베풀고 있다.

20여 년 전 총지종의 많은 사원들은 합창단을 조직하여 음성공양,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활동 등 각 사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종단에서는 전국의 합창단들을 한 자리에 모아 노래실력을 겨루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종단에 존재하는 합창단은 서울 경인교구, 정각사 만다라, 대구경북교

선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원의 교화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원들의 결속력과 유대관계의 상황 척도에 따라 그 사원의 교세 관리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합창단은 매주 음성공양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수련하고,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제공함으로써 위안과 행복을 주고 있다. 또한 합창단이

중에서도 각 사원별로 합창단을 조직하여 젊은 교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원들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교도들에게 신심을 고취시키고 찬불가를 통해 마음의 수련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종단은 교화활성화를 위해 각 사원별 합창단 창단과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충지공보 편집위원〉

신행체험 29



송옥선(묘공계) 보살

〈지인사 신정회 회장〉

▶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

저는 대전에 살 때 진언종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로원에 계신 상지화 전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수행하고 있었는데, 총지종이 창종되면서 상지화 전수님께서 총지종으로 옮기면서 저도 상지화 전수님을 따라 총지종에 와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꿈속에서 “산 중턱에 앉아서 보니 곁에 있던 대접이 물속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 마름같은 보처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올라와 어느 집을 가니 그 집 바닥이 번질 번질 빛나고 치마저고리를 입은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왔나”고 물어서 “몸이 아파서 왔다”고 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백일사에 갔더니 지난 밤 꿈속에서 본 전수님이 계시고 큰 거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전생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총지종에서 수행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 수 십년 동안 이 법을 놓지 않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저는 충남 논산에서 살았는데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신이 들린 듯이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온 몸이 아팠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산다는 자체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맞스누이가 몸마니반메혹의 진언을 외우면 병이 치료된다고 하면서 매일 몸마니반메혹을 큰 소리로 염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쉬지않고 몸마니 반메혹을 염송하니 아픈 것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더니 신기하게도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몸마니반메혹은 저의 생명이고 삶

진언염송으로 병고해탈

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법문을 받게 되었는데 한 때는 제가 절에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몸마니반메혹을 게을리 염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각자님이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법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승님을 모시고 집에서 가정불사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집에 돌아와보니 각자님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몸마니반메혹이 있기 때문에 사는 재미를 느끼고 가정에 별 어려움 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저는 아들만 3형제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절에 나와 수행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는 진리를 믿지 않아서 각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와 각자님은 이 법이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절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절에 가자’하고 이야기하면 ‘어머님만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왜 이 좋은 법을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님과 상의하여 ‘내가 죽고나면 절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말하곤 합니다.

▶ 그동안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수행법은?

저는 집에 저 혼자만을 위한 불공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불공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공하면서 나쁜 일을 하거나 심기가 불편하면 법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마음으로 불공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불공을 하다보면 법문이 바로 오게 되어 이 법이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내가 법을 원망, 시기, 질투하면 반드시 나쁜 법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문을 받았을 때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참회하면 신기하게 나쁜 일이 해결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불공만이 저의 생명이라 생각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불공할 것입니다.

▶ 총지종 수행법의 좋은 점과 수정할 점은?

저는 총지종 수행법이 마냥 좋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원들도 젊은 층

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수행방면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인사 교도를 자랑할 점은?

다른 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인사는 아주 단합이 잘 됩니다. 사원에 행사가 있어 일을 할 때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곳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인 극락정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인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사원이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넘쳐나고, 어린 아이들이 사원내에서 여기저기 움직이며 큰 소리로 노는 것을 보며 바로 이곳이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부처님의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총지종 종단과 지인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지인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보살님들이 절에 오기 위해서는 힘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절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인사에 봉고 차가 한 대 있으면 절에 오고 싶어 하는 노보살님들을 절에 모시고 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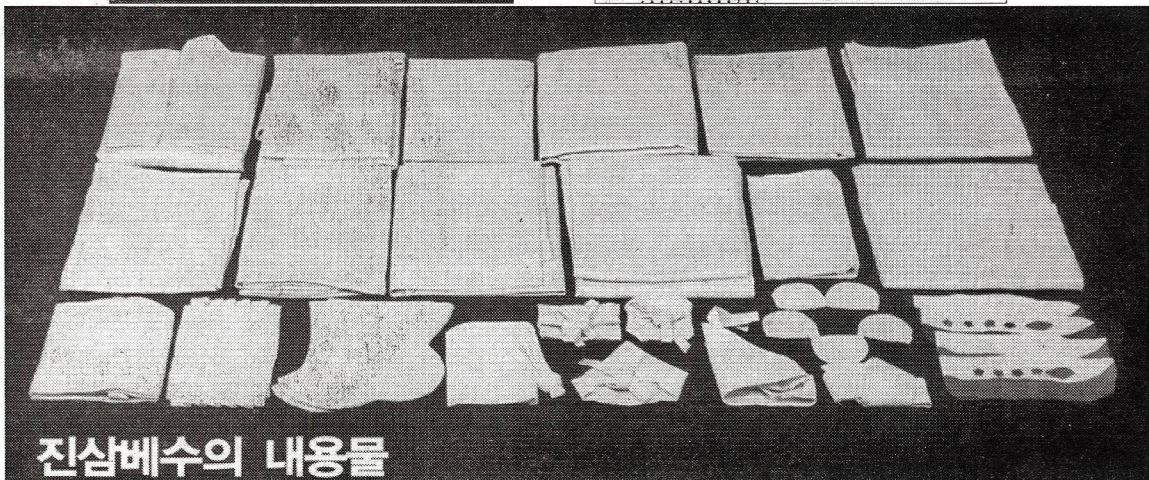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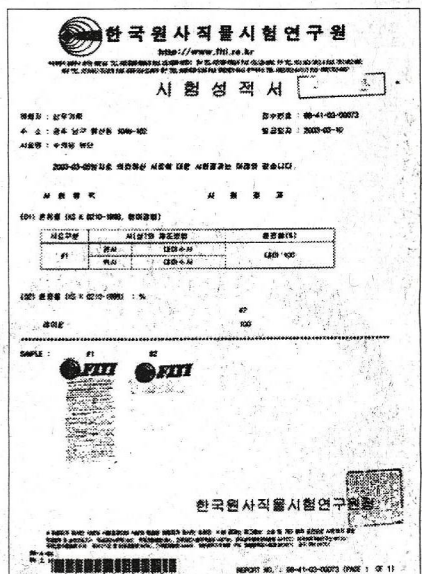
지인사 교도분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나이 많은 제가 신정회 회장직을 맡아 항상 미안하고 아무 불평없이 절 일을 잘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항상 좋은 법문을 해주시고, 불공을 해주신 전수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분들, 지인사 전수님과 교도분들 열심히 용맹정진 하셔서 꼭 소원성취하시고,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孝는 만행의 근원..., “진삼베 수의”로 孝를 실천하세요



진삼베수의 내용물

수의(예복)이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과 모든 번뇌를 버리고 극락왕생할 때, 또한 조상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으로서 원단은 주로 진삼베를 사용했으며,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수의를 준비해 두시면 집안에, 우환과 잡재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누리다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입니다. 불교총지종에서는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 성적표를 받은 100% 진삼베 원단으로 보증받아 제작한 수의를 교도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삼베수의

삼베(大麻)는 고유의 독특한 향균기능을 함유하고 있어 예부터 조상님들의 생활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진삼베수의는 사부대중들이 입었던 수의로써 100% 진삼베(화순포) 220자를 사용하여 엄밀한 작업공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제작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수의내용

男: 도포, 도포띠, 두루마기, 두루마기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대님, 행진, 천금, 지금, 장매, 땃배 (총23종)
女: 원삼, 원삼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치마, 속치마,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족두리, 천금, 지금, 장매, 땃배 (총22종)

무료제공

본 수의를 구입하시면 진, 완장, 행진 각 10장씩과 명정, 관보, 습신, 예단 등 부속물 일절 및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입는 상복을 가족수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의보급가격

120만원(3회 분할납부 가능) 결제방법: 온라인입금

연락처: 불교총지종 통리원 (02-552-1080~3) * 수의금은 사원의 만다라 봉안불사에 쓰여집니다.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

차가운 겨울바람의 매서움에 옷깃을 여미게 한다.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포근함을 전하는 세상, 따뜻하고 정겨운 화로 처럼 다정한 이웃들이 모여 사는 살맛나는 세상, 번뇌와 욕망의 무명을 해탈하여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지인사를 찾아가 본다.

지인사는 총기2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2층 건물중 1층을 임대하여 부평서원당으로 개설하였다. 총기 4년 입정서원당으로 개칭하여 불단이설하고, 총기 5년 부평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인사로 개칭하였다.

총기 12년 부평구 십정2동에 283평을 매입하고, 총기 24년 11월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지인사에는 초대 정혜원전수의 교화시작으로 정제정사, 묘법정전수, 대자행전수, 청암정사, 일성해전수가 교화하였으며, 현재 연등원전수가 중생교화를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다.

지인사 서원당 문을 들어서니 서원당에는 난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독아청정 푸르름을 자랑한다. 연등원 전수님의 설법소리가 모든 중생들을 무명의 번뇌에서 구제하듯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고, 아동실에는 네 다섯 명의 아이들이 마냥 즐거운 듯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놀고 있다. 연등원 전수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법을 풀어가신다.

“옛날 어떤 나라가 있었다. 백성들이 번성하고 남녀노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두루 행하였다. 그러나 성질이 흥하고 사나워 교화하기 어려웠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라로 가셨다. 5백 아라한이 마음은 몹시 교만하였다. 그래서 마하 목건련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제가 가서 저 사람들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는 가서 법의 도를 설명하였다. “착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만일 온갖 악을 행하면 그 죄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온 나라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꾸짖으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다. 사리불이 목건련에게 말하였다. “여러 사람을 교화시키려면 지혜로써 못난 체 하여야 합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권하여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가기를 허락하셨다. 그는 가서 법과 계율을 설명하였으나 그들은 또 그것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때리며 욕하였다. 그리고 마하가섭과 높은 제자 5백인이 차례로 갔으나 제도하지 못하고 모두 무시와 비방을 받았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 나라 사람들이 포악하여 착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도리어 확대하고 욕을 보입니다. 한 사람의 아라한을 욕하여도 그 죄가 적지 않거늘 하물며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거스름이겠습니까? 마땅히 허공도 용납할 수 없는 중한 죄를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그 죄가 깊고 무겁지만 보살이 보면 깨끗하여 죄가 없느니라.” 이에 문수사리를 보내어 제도하게 하셨다. 문수사리는 그들의 왕에게 가서 직접 칭찬하고 늙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듣고 알게 하였다. “아무개는 용맹스럽고 건장하며, 아무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아무개는 담이 크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이 있는 곳을 따라 마음껏 칭찬하

니 모두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 어른의 말씀은 신묘하여 우리의 생각을 잘 알아주시니 얼마나 유쾌하고 장하십니까?” 그들은 각기 금과 향과 꽃을 보살 위에 놓고 또 모두 좋은 모직물과 비단 옷과 맛있는 음식을 보살에게 바쳤다. 그리고 위없는 평등한 도의 마음을 내었다. 문수사리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게 공양하기보다 우리 스승님께 공양하십시오. 우리 스승님의 이름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모두 같이 공양하면 그 복은 한량없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 이어주는 따뜻한 부처님 세상

그들은 못내 기뻐하면서 문수사리를 따라 부처님께 나아갔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그들은 곧 불퇴전을 얻었으며, 세계는 크게 진동하였다. 그리고 산의 수풀과 나무들이 모두 찬탄하였다. “문수사리는 이렇게 잘 제도하신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 깊고 크다는 죄가 어디 있는가?” 5백 명 아라한들은 땅에 쓰러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보살의 교화하시는 위신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부처님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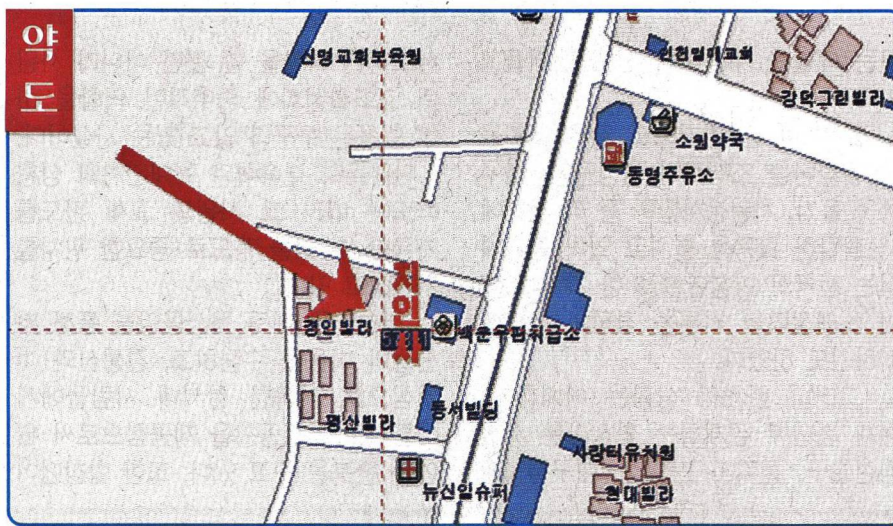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남편을 자랑할지언정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아니 남의 허물을 찾아 남에게 이리저리 이야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5백 아라한이 제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문수보살은 칭찬으로 제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찾기 보다 남의 좋은 점을 보아가며 남의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마디의 칭찬은 많은 복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만이 많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이고,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되어서 불만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만을 해결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뭔가 노력하지만 오히려 잘못되어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것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불만과 후회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생활에서 고통을 없애고 행복과 평안을 만드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 가르침의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계율입니다. 계율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후회할 일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악행의 결과는 고통과 실패가 따르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후회할 일을 하고 후회하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뼈아프게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고통과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 노력하여도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우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꼭 지킨다는 맹세를 거듭해야 합니다.

주소 :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78-1
전화 : 032-528-2742



인터뷰

지인사 연등원 전수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요

불교와의 처음 인연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현교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가끔 어머니 따라 절에 가게 되어 불교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결혼을 했는데 각자남편에서는 오래 전부터 밀교와 인연을 맺고 진각종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총지종이 창종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승으로서 중생제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다 인연의 묘한 법에 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시집갈 때 검정치마 저고리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총지종 스승의 정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요

어디 특별한 수행철학이 있었습니까? 그저 부처님 법이 바로 내 생명이고, 삶의 의미라 생각하고 열심히 불공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다면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행이라 생각합니다. 자신과 악속한 불공법과 실천법, 마음속에 원망심과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다짐, 매일 매일 불공하는 습관과 불공시간과 기간을 지키는 일 등 많은 계행들을 지켜나갈 때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계행하면 대부분 '하지 말것'이라고 생

각하는데 '해야 할 것'이 바로 중요한 계행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보시행을 실천하고, 불공법을 지키는 것, 화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 항상 웃으며 생활하는 것 등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천법입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성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실천할 때만이 화려한 연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 중생교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생교화는 특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이심전심'이라 내가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생활하고 보살님들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보니 중생교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곧 보살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나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은 반드시 상대방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 생각하며 보살님들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괴로움을 나



연등원 전수

누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스승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행복은 보살님들 가정 가정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하여 해탈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간에 아집과 집착에 얽매어 살고 있고 나와 너를 살리는 자제가 아닌 서로 죽이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요

부처님께서 수행의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집착과 아집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없애는 제법무아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현대 사람들이 아집과 집착에 사로잡혀 생활하는 것은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아상, 마치 천 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는 행동을 할 때 서로간에 경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는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버리고, 무소유의 삶, 남을 배려하는 동체대비의 삶을 살 때 경쟁심은 없어지고 아집과 집착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인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나쁜 과를 받는다'는 인과법을 믿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베풀고, 상대방에게 자비스럽고 위로의 말과 행을 보이면 나에게도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온다는 것을 믿고 행할 때 아름다운 사회,살맛나는 삶이 건설될 것입니다.

▶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보람이 없으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중생교화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중생교화를 하다보면 힘든 만큼 보람된 일도 많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부처님의 전당 안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을 뵈고 불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보람이고,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법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극복해서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사원에서 불공하여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을 보면 마음 한 구석에 환희심이 솟아날 때 '내가 이 맛으로 중생교화를 하는구나'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 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부처님께서 시험을 치는가 보다' 하며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라 느끼지 않고 '부처님의 시험이니 즐겁게 치루어야지' 하고 생각하며 생활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교화를 하다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은인이 나타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일은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생각이

로 교화를 하다보니 남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도 쉽게 해결되곤 합니다.

▶ 총지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요.

우리 지인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총지종 전체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이 적은 것 같습니다. 사원은 젊은 보살들이 많아 생기가 있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지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들이 총지종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행체계와 포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종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사의식의 통일성과 장엄성,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면 합니다. 현대는 다종교사회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 중에서 쇠퇴하고 생존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공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여러 종교단체들을 거울삼아 분반을 것은 분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지인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요.

우리 지인사는 보살님들이 원원대도의 굴레속에서 차별과 분별심 없이 살아가는 생활공동체입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보살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총지종 교도분들 모두가 열심히 용맹정진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